

첫 마음

“내가 할까? 세상이 날 바꾸는지, 내가 세상을 바꾸는지?”

‘어른문제 대책본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모습을 드러냈던 한 청소년사이버공동체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청소년들이 서서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임에 틀림없나 봅니다. 한 청소년은 “청소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반대말은 ‘자유’이다”라고 답했다지요. 1989년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며 국민교육헌장을 빚낸 고교교육헌장을 발표하여 입시위주 교육 현실에 쓴웃음을 내뿜던 청소년들이 1998년에는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관심들이 제기되었던 1998년에는 청소년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통해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임을 천명하면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청소년 관계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를 주제로 회의를 하며, 사회발전의 희망과 에너지이자 열정과 실험정신인 청소년을 건강한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199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10주년 되는 해이자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고 주장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여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2000년에는 청소년들이 ‘두발제한 반대 운동’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계속되던 인권법 논의는 드디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동안 권리를 유보하고 참을 것만 배워온 청소년들은 막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서툴러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스스로도 자신감과 의욕 상실, 패배감과 낙담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아직도 청소년은 어른들이 보호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입시준비라는 원죄(?)에 묶여 현재의 삶을 누릴 권리는 잠시 접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 의식을 신장하고 권리 향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리 행사 경험과 기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갖출 때까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 청소년들이 시작한 첫걸음이 씩씩한 달음질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주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경험,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

해 책임을 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모의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힘겨운 첫발을 내딛으면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에게 조금만 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스스로 의젓하고 당당하게 일을 펼치고 결정하며 책임져 나가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치활동 능력을 기르고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담았습니다. I 권에는 다양한 자치활동을 해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치조직이 왜 필요하며 의미를 갖는가(1장. 김영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2장. 김민), 자치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3장. 이용교), 그리고 자치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 기술(4장. 안재희) 등이 그것입니다. II 권은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치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활동 아이디어들을 담았습니다. 쉽게 풀어쓴 자치조직 구성·운영방법(1장. 김순이·변길섭), 자치활동으로 해볼만한 문화축제 프로그램(2장. 심한기, 3장. 김태황), 대학자원을 활용한 자치활동(4장. 김병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치활동과 청소년 사회참여활동(5장, 6장. 안승문) 등이 그것이지요. 청소년분야의 자원들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특히, 2권은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활동하고 있는 ‘괜찮은 어른들’이 생생한 현장정보와 ‘활동 비법들’을 소개하고 있어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지만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자치조직을 꾸리거나 신입회원을 맞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나 세미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보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현재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며 무릎을 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다 더 인간답게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제 청소년이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은 순수한 열정과 창의성, 때묻지 않은 비판의식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에 이러한 ‘청소년의 힘’이 필요합니다. 머지 않아 어른들이 청소년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외국의 한 청소년단체의 모토처럼 “We can’t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you.”(우리는 당신 없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말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참 아름다운 도전! 바로 청소년 자치활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펼치는 활동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꾸려나가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이 책이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넓은 세상 불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불의 앞에선 정의를 말할 수 있고...그러나 거친 벌판의 작은 들꽃에도 눈물짓는’
그런 청소년을 찾습니다.

2001년 겨울, 집필자 일동



차례

첫마음

청소년헌장

제1장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 청소년 자치조직

1. 함께 가자 우리 : 자치조직 만들기	6
2. 네 손은 내가 잡고, 내 손은 네가 잡고 : 자치조직 운영하기	15
☞ 이것만은 알아두자! 청소년 자치활동 10문 10답	31

제2장 우리동네에서 신나는 문화축제를 벌여보자!

1. 청소년과 문화	38
2. 지역사회 문화축제	40
3.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만들기 A부터 Z까지	42

제3장 거리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한마당, 명동청소년거리축제

1. 축제! 그것이 궁금하다	58
2. 청소년이 접수(?)한 명동거리, 2001 명동청소년거리축제	60

제4장 틀을 깨는 청소년활동 : "대학을 이용하자!"

1. 대학공간 활용하기	70
2. 대학공간을 이용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71

제5장 학교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청소년활동

1. 학교에서의 자치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86
2.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멋지게 하는 방법	87
3. 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96

제6장 희망의 미래를 알구는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1. 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인가?	104
2.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몇가지 프로그램	105

부록

정부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122
청소년위원회란?	127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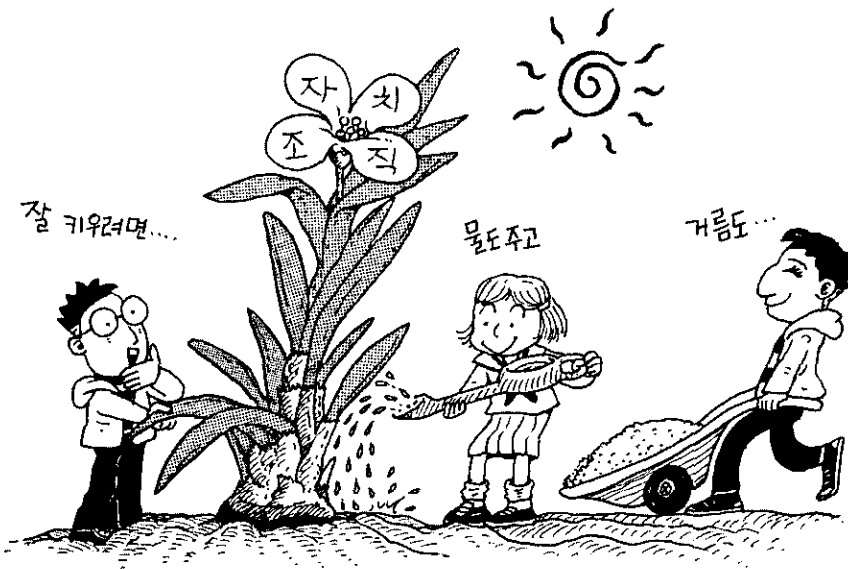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제1장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청소년 자치조직

1. 함께 가자 우리: 자치조직 만들기

고등학교를 끝지로 졸업한 한국계 미국인 ‘대니 서’는 12살의 나이에 환경단체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젊은이 50인”에 속하는 칭호를 당당하게 얻어냈습니다. ‘대니 서’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에 충실히 행동하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지요.

미국이란 나라의 예를 들지 않고서도 청소년들이 자치조직을 꾸려내서 어른들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 정책까지 바꾸게 한 예는 우리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두발자유화운동이 그것인데, 인터넷 서명운동에서부터 시작한 그 운동은 전국적인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어냈음은 물론이고, 학교마다 교칙을 새로 개정하는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대니 서’나 몇몇 선도적인 생각을 가진 청소년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대답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궁무진한 창조력, 열정, 그리고 한가지 일에 몰두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자발성과 헌신성입니다.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 스스로 자치조직을 만들고 슬기롭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 활동을 시작하기 전

세상에 무슨 일이든 관심없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하다 보면 그것이 좋아지고 또 따라하기 마련이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관심이 지나쳐서 맹목적인 추종이 되면 안되겠지만, 관심 없이 시작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춤, 노래, 게임, 운동과 같은 문화·체육활동이 될 수 있고 성, 환경, 정치, 평화 같은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하나씩 정했나요? 단지 관심의 단계에서 끝난다면 아무 것도 이뤄낼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관심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2) 관심을 실천하자

관심가진 문제들을 살펴보면 여러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고, 또 내가 어떤 춤의 장르를 좋아하는지 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춤의 장르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단지 남의 춤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춰야 흥도 나고 더 큰 관심과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을까요? 실제로 춤을 추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춤’을 출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장르의 춤을 보고 따라도 해보고 새로운 것을 개발도 해야겠지요. 춤이 아니더라도 많은 일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역사현장을 직접 답사해야 하며,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가슴에 와 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문제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혼자서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능을 익히는 문제가 아니라면 혼자하기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기능을 익히는 활동 또한 여럿이 힘을 모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면, 혼자 공부하고 방법을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위를 둘러보면 청소년시설이나 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함께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손쉽게 여러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나 모임을 찾기 어렵다면 속수무책으로 단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3) 사람을 모으자

자! 이제 ‘조직’을 만드는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일입니다.

① 주위사람을 활용하자

사람을 모으겠다고 거창한 방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방법도 제대로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 합시다.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고민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해 봅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주위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우선 그런 사람들부터 하나 둘씩 모아가면서 ‘우리 조직’의 구성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에 홍보하기

자신의 생활 주위에서 한 두 사람의 동지를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주위에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카페’ (혹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지요)부터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인터넷이란 열려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시판에 자신의 카페나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도 사람들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 상으로 대화방도 개설해서 토론을 주고받다가 Off-Line에서 직접 만나 토론하고 모임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본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직의 틀이 갖추어진 셈입니다.

③ 행사장에서 사람 모으기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도 별 실효성을 못 본다면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턱대고 명동이나 종로, 신촌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뚝 떨어져서 선교사 같이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들려는 조직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사에 참여하기입니다. 만일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인권관련 영화제나 인권행사장에 참여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선배들 혹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관련 행사를 찾기 어렵다면 굳이 행사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생각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다리품을 파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하지만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데서 효과적이란 사실, 잊지마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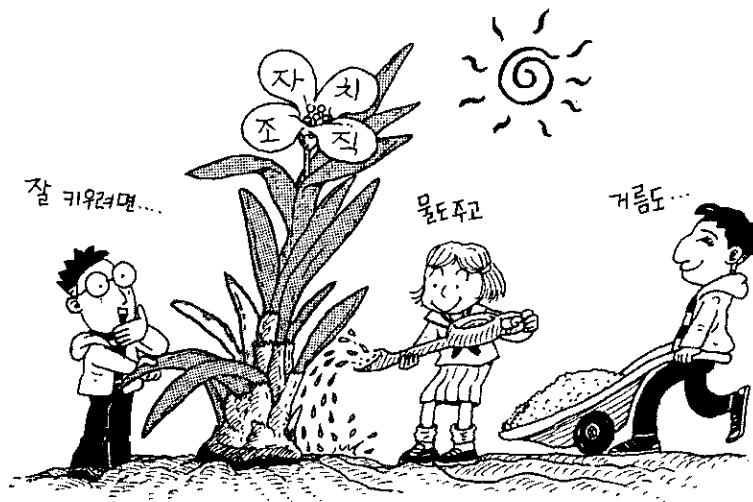
④ 매체 활용하기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이외에 또 있다면 그것은 다른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방송실도 좋고 라디오 방송에 원고를 투고해 선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아가 동참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와 같은 방송에 투고하기 어렵다면 신문을 이용해 봅시다. 신문은 독자투고란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사람 모이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꼭 자신의 연락처(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남기는 일은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요즘은 인쇄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말고도 인터넷 웹진이나 인터넷 신문사(혹은 인터넷 방송국)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언론은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한겨레리포트(<http://hanireporter.hani.co.kr>)> 등이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세요.

4) 모임의 공간 마련하기

자, 이제 조직을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처음 두 세 명이 모여 회의를 한다면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제적 부담도 되고 시끄러운 소음때문에 모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겠지요.



조금만 생각하면,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한 장소들은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① 청소년시설 혹은 사회복지시설

우리 나라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혹은 더 작게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시설 관리자를 만나 상의해 보세요. “나는 청소년인데 설마 나에게 이런 장소를 빌려줄까?” 하는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우선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나오게 마련이니깐요.

우선 시설 관리자를 만나 우리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소를 정기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청소년시설·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상당수의 시설에서는 모임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던 기관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곳의 관리자를 만나보면 모임의 장소를 해결할 뿐 아니라 뜻하지 않았던 다른 부수적인 성과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과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제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② 대학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주위에 없다면 차선책이지만 대학교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조용하게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학교는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지요. 그러기 위해선 대학 학생회실에 찾아가 대학생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무턱대고 대학 관리처를 찾아갔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학생회장 같이 여러분과 같은 활동을 하는 학생자치조직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시민단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과 대학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소도시나 농촌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엔 거리상으로 너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시민단체가 있나 찾아봅시다. 시민단체들은 그 종류와 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꼭 한 두 단체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시민단체도 찾아볼 수 없다면 지역농민회사 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니 만큼 청소년들이 좋은 의도의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주위의 도움을 많이 활용하면 그만큼 세상이 넓어 보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는 ‘시민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http://www.civilnet.net/>>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행정을 개선하고 자치적인 모임을 꾸려가는 곳이니 만큼 이 장소를 지역주민인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뿐 아니라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구청자원봉사센터도 같은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용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십시오.

이 외에도 지역에 공공기관을 찾아보면 한 두 개쯤은 꼭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해 모임을 꾸려 가면 사무실을 얻어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요. 주위 도움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조직의 명칭 짓기

① 조직의 이름 정하기

조직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자기 조직의 성격과 활동, 구체적인 구성원들을 알리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조직 특성에 맞는 명칭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몇 가지 청소년 조직의 예를 들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직의 성격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요. 학생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직의 활동내용 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명칭을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직의 활동내용이 방대하고 특정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또 한가지 예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라는 명칭을 봅시다. 여기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이며 21세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느낌이 들지요. 조직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비전과 미래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광주 청소년포럼’의 경우에는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포럼을 구성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만든 자치조직까지 어른들의 00연합, 00협의회, 00연대처럼 딱딱한 이름을 짓는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부르기 쉽고 편안한 이름으로 지어보면 어떨까요?

조직의 명칭은 자기 조직의 구성원들이 부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조직을 알리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어야 합니다. 물론 조직의 성격을 명칭에 담지 않고 ‘푸른이’, ‘바로서기’와 같이 부르기 쉽고 뜻 있는 말로 명칭을 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그 조직의 회원들이 공감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함축적인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② 조직의 목적 정하기

처음 조직을 만들 때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고 활동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조직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활동내용과 목적이 다르게 된다면 그 조직은 실패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조직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조직의 존재 이유이니깐요.

다음은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출범선언서입니다.



출범 선언서

그 동안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노예였다.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서만 취급되어 왔다. 이런 반민주적 교육관은 일제는 일제의 신민화 정책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가깝게는 군사독재시대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통제문화에 의해 고착화되었다. 구 친일 세력에 이어 교육 기득권 세력으로 뿌리박은 반민주 교육보수세력은 교육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인 학생관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인정신과 비판정신, 민주정신을 박탈하고 권위주의와 냉소주의, 노예근성을 내면화 시켰다.

더 이상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학생은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고, 고상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학교의 주인으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우리, 여기서 학교를 민주화하고,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서 서기 위해 일어서고자 한다. 학교 민주화는 지금 무너져 가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2000년 12월 23일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출범선언서에는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 민주화를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지요.

6) 조직 구성하기

이제 조직을 구성할 사람들도 모였고 모임 장소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의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 모임을 생각한 사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조직이 커지고 또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혼자 모임을 꾸려 가는 것은 역부족이랍니다. 이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살펴봅시다.

① 역할배분

조직의 역할은 우선 작은 조직일 경우에는 조직의 대표와 회비를 받는 회계, 회의를 정리하는 서기 정도만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회원이 많아지고 활동이 다양해지면 단순히 대표, 회계, 서기 정도의 사람들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직의 체계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지만 어떤 조직이든 한결 같이 똑같은 체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체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 어떤 역할의 사람들이 필요한지부터 점검해야겠지요.

기본적으로 대표와 총무는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운영진을 필요이





상으로 비대하게 만들어 활동과 별개의 감투만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대한 기업들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회사의 운영을 가볍게 하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만들 때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대표는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조직의 대표가 수많은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회원수가 늘어나거나 혼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중대 사안이 많은 조직의 경우는 부대표의 체계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인터넷 담당자가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조직에 필요한 역할과 사람을 정리하면 우리 조직에 몇 명의 운영자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책임자가 누구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조직체계에 대한 인식작업도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겠지요.

② 조직의 회칙과 정기모임 정하기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이 마련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회원들이 늘어나고 관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조직내부의 규약이나 회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간편한 절차가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회원들 모두 공유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조직의 회원들 전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운영책임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따로 규정하고 이런 모임들을 정기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도 시급한 결정사안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과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원들 전원에게 의견을 이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묻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규약과 회의 등 운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서 예를 들었던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규약을 첨부합니다(「전국 중고등학생 연합 총규약」 참조).

참고로 조직을 꾸려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조직이 탄탄하게 꾸러졌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이 공익적인 활동을 주로 한다면 각 시·도 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회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보낼 때는 우편요금도 50%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민간협력과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를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공익법인으로 정부부처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청소년 자치조직의 특성상 재정적 요구 조건이 무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2. 네 손은 내가 잡고 네 손은 내가 잡고 : 자치조직 운영하기

청소년 자치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순서를 따라 제대로 잘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제 조직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운영방법의 기본 흐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활동 기획하기

많은 단체나 조직에서는 활동을 그저 시기적인 사안에 맞추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의 성장이나 발전·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원들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조직의 방향과 전체적인 활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은 처음 활동을 준비하거나 시작할 때 더욱 중요하합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조직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된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활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시작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기획할 때는 가장 먼저 자기 조직의 구성원들과 회의를 거쳐 가장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진단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점검하며 활동을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조사하고 왜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종류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에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목표 정하기

해야 할 활동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목표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합니다. 또 목표설정애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직의 회원들이 과연 '할 수 있는 활동인가?' 에 대한 고려입니다. 혹시라도 조직의 능력에 맞지 않는 활동을 계획하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서 무리 없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토론할 때에는 가능한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함께 모여 '만일 이렇게 한다면...'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회원들에게서 각종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생각났다면 구체적인 활동의 실행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선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실행계획서 작성하기

실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포함해서 활동의 명칭, 기간, 장소, 참여인원, 활동시간, 활동방법, 활동에 필요한 도구 등입니다.

앞서 들었던 "학교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예로 들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계획서에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활동을 하면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짜기

청소년들이 자치조직에서 가장 큰 난관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문제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항상 어려움과 헌신이 따르는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이지요.



- 활동명칭 : “우리 학교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 활동기간 : 2002년 3월 2일 ~ 7월 24일
- 활동장소 : 각 교실, 매점 앞, 동아리방 앞
- 소요시간 : 매일 쉬는 시간 5분과 방과 후 30분
- 참여인원 : ‘청소년 환경지킴이(활동할 모임의 명칭)’ 회원 전원
- 활동에 필요한 도구 : 캠페인용으로 제작한 사진과 글이 담긴 피켓 또는 패널, 쓰레기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유인물, 쓰레기양 조사용 체크리스트, 필기도구 등
- 활동방법 : ① 학우들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누어준다.
②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체크하는 리스트를 준비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양을 조사한다.

청소년들 힘으로 큰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은 여기에도 통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일단 문제에 직면해서 부딪쳐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① 회비

회원들 각자 책임을 느끼고 활동하는 조직인 만큼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는 기본입니다. 회비로 거액을 만들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라 해도 각자의 용돈을 쪼개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은 책임의식과 자율성을 키우는데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조직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의 회비는 거의 운영자금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회원모임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조직과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활동자금이 문제인데, 이것은 회비 중에서 후원회원의 회비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우리 모임의 활동에 동의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주위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이나 선배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의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해 봅시다. 많은 설득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임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② 공모사업에 제출하기

최근에는 상당수의 공익법인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공모해, 선정되는 사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 재정과 책임자를 필요로 하지만 소규모 단체나 임의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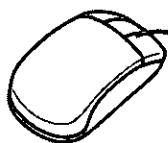
최근에 생긴 '아이들과 미래(www.kidsfuture.net)'라는 곳에서는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는 '나눔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해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모아진 공익사업 지원서를 가지고 평가하여 선정하는데 공부방과 같은 임의단체를 지원하는 곳이니 만큼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사업도 제출해 볼 만 하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가장 많은 공익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단연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chest.or.kr)'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을 모두 모아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1년에 한 번씩 배분해 주고 있지요. 이곳을 활용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많은 설명을 첨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기관명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

아이들과 미래 : www.kidsfuture.net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www.chest.or.kr
 시민운동지원기금 : www.koreafund.or.kr
 벤처기업나눔문화캠페인 '나눔여 함께 하는 세상' : www.ventureanum.org
 아름다운재단 : www.beautifulfund.org
 청년세계탐구단(국제교류 활동 지원) : www.kywf.or.kr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정부 국정홍보처 지원사업) : www.civil.go.kr



③ 기업에서 지원 받기

사회복지 공익재단 이외에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롯데재단,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아산재단,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삼성복지재단이나 삼성사회봉사단 등인데 이런 곳에서도 소규모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러한 공익재단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 담당자를 면접하는 방법도 유용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기란 어른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힘들다고들 하지만, 청소년 자치 조직에서 노력만 한다면 기업의 기부금은 아니지만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관련 부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활동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후원품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다 보면 소규모의 물품 후원은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에서 우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갖고 있어야겠지요.

이 외에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장, 장학금, 홍보 등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원 협조 공문 사례」와 「상장 사진」 참고).

5) 본격적인 활동하기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을 직접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분담하고 어떻게 도와야 활동이 가능한지 타진 해 본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앞서 '학교에서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를 예로 든다면, 활동에 필요한 피켓과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과 자료를 수집하고, 패널을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배포하는 일까지 모든 활동의 전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물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허락을 받는 것은 사전에 꼭 거쳐야 할 일이겠지요.

아, 이점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활동을 실행할 때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데 유인물을 받아서 읽지 않고 땅에 그냥 버리는 학우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버리는 학우들을 찾아 일일이 설득하고 읽어 보도록 하기가 적은 회원들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캠페인 후에 유인물을 주워서 캠페인 때문에 학교에 쓰레기가 많아졌다는 평가는 받지 말아야겠지요. 이처럼 예기치 않은 변수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활동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융통성과 순발력을 발휘해서 활동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는 장기간 같은 활동을 계획하는 조직일수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후원 협조공문사례

충청남도청소년자치위원회

www.freechal.com/chungnam2000 E-MAIL _____@_____ HP 000-0000-0000
 충청남도청소년자치위원장 ○ ○ ○ 부위원장 ○ ○ ○

문서번호 충청자 2001 - 8

시행일자 : 2001. 07. 19. ()

공개여부 : (공개)

받 음 : 한국청소년개발원장

참 조 :

선람			지시	
접 수	일 자		결 재 · 공 람	
	시 간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사이버 캠페인 '아름다운청소년상' 과 관련한 후원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청소년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후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아름다운 청소년」 상 매니아청소년 부문

1) 장학금 일금 200,000원(이십만원)

2) 상장 - 아름다운 청소년

나. 행사에 따른 귀 기관 사이트의 본 단체 행사 사이트 링크 설정

(www. freechal.com/chungnam2000)

다. 심사자 1명 위촉

붙 임 : 1. 아름다운 청소년상 사업계획서 1부.

2.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정관 1부. 끝.

충청남도 청소년 자치위원장 ○ ○ ○

※ '아름다운 청소년상' 사업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6개분야의 '아름다운 청소년' 을 추천하고
 시상하고자 하는, 충남 청소년자치위원회에서 기획 · 시행한 순수한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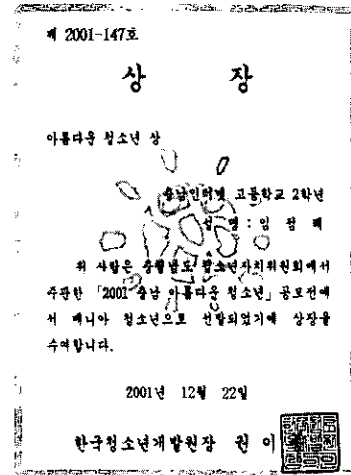
6) 평가하기

본격적인 활동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종료하기 전 활동에 대해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나은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평가는 활동에 참가했던 회원들 뿐 아니라 활동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활동 성과와 반성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일까지 모두를 포괄해야 합니다. 평가는 활동의 종료시점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시 유의할 점은 “누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활동이 잘못 됐다”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활동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회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중요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음부터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까지가 평가의 전반에 해당된답니다.

활동이 아주 잘 되어 반성할 것 없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이 되기 위해서 평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가의 내용을 기록해서 다음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7) 보고하기

모임의 회원 전원에게 전체의 활동 과정과 평가의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활동의 보고도 필요하겠지만, 일년동안 전반적인 운영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회원 전원에게 보고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회비에 대한 사용내역, 일년간 활동 내역, 총회에서 있었던 결정 내용 등 조직의 운영 전반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두고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회원이나 후원회원에게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이고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과 활동을 독려할 수 있으며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칭찬의 분위기도 만들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이 밖에도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홍보는 활동을 계획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서 1절의 '3) 사람을 모으자' 편에서 많은 방법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활동을 홍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대한 조언

①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항상 민주적인 결정 방식을 택하고 조직의 대표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② 즐겁게 활동하자

어떤 활동이라도 즐겁지 않으면 금방 싫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하기 싫고 모임에 한 두 번씩 빠지기 마련이지요. 모임에 한 두 번 빠지면 더 공유할 내용이 없어져서 이제는 중도에 포기하는 일마저 생기게 됩니다.

힘들었던 활동 후에도 즐거운 뒤풀이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신나게 어울리는 기회를 갖는 것은 조직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③ 정직하게 활동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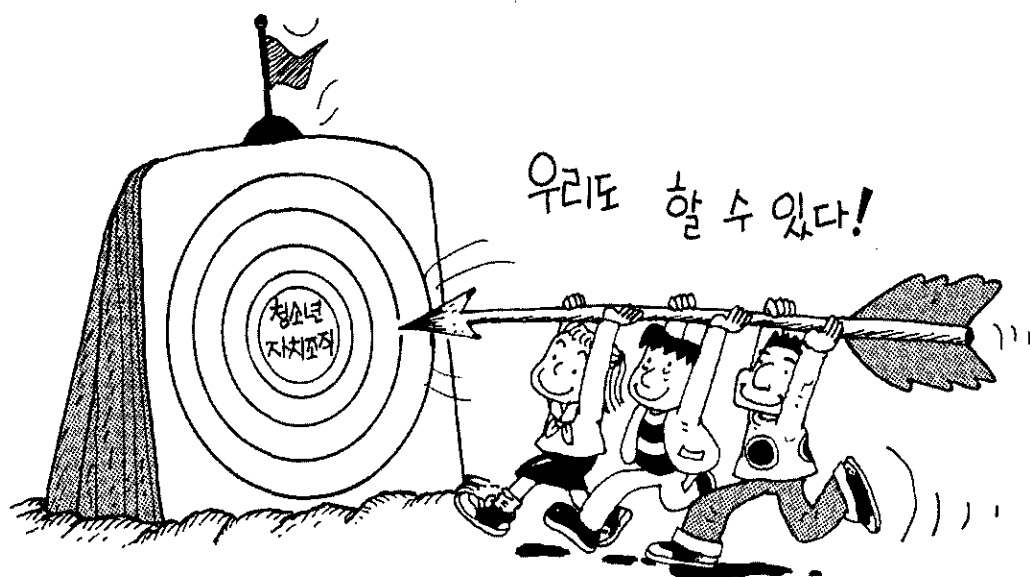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고 자칫 조직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소한 경우라도 회원들끼리 정직해야 하며, 활동을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활동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없는 활동이라고 해도 정직하게 지속하다보면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할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이점 잊지 마세요.

④ 꾸준히 활동하자

한 번의 활동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떠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활동은 그 활동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활동을 알리고 또 전파하려면 꾸준히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한 번 하고 팽개칠 활동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요.

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면 축제 분위기로 기분을 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호응도 없고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좌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세요. 수많은 노력과 고생 끝에 성공해야 더 멋진 성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패해도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장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2001년 1월 20일 제 정
2001년 7월 29일 개 정

1장 총강

1조(명칭)

- ① 본 연합의 정식 명칭은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며, 약칭은 '학생연합' 혹은 '학연'으로 한다.
- ② 본 연합의 영문 명칭은 students' union for human rights and education reform이며, 약칭은 'union10'으로 한다.

2조(목적)

본 연합은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학교민주화를 실현하고, 학생 권익을 옹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성격)

본 연합은 본 연합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개인으로 구성된 총 학생 연합체이다.

2장 회원

4조(회원 자격)

- ① 현행 중고등학생 혹은 그 나이에 준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중등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성인자원활동가로서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본 연합에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5조(성격)

- ① 정회원은 학생연합의 주체다.
- ② 성인자원활동가는 보조자로서 정회원의 활동을 돕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후원회원은 학생연합을 심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기적인 후원회비를 납부한다.

6조(가입과 탈퇴)

- ① 본 연합의 강령과 총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 ②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스스로 소정의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했을 때
 2. 회칙에 의거하여 제명 당했을 때
 3. 사망한 때

7조(권리)

- ① 모든 회원은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단, 징계 시 규약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정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연합 회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4. 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보고 받을 권리
- ③ 성인자원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연합 회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2. 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보고 받을 권리
- ④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보고 받을 권리

8조(의무)

- ① 모든 회원은 규약에 따른 의무를 진다.
- ② 정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연합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규약을 준수할 의무
 3. 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③ 성인자원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연합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규약을 준수할 의무
 3. 활동 회원들의 자문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도움을 줄 의무

9조(징계 및 포상)

- ① 연합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3. 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1, 경고2, 제명으로 나뉘며, 상황의 경중에 따라 하나를 선택한다.
- ③ 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포상한다.
- ④ 징계·포상에 관한 부분은 해당 지역·지부집행부회의에서 의결하되, 재심 요구 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또한 지역·지부별 단위 집행부가 없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0조(권리의 제한)

- ① 성인 자원활동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약상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단의 장이 될 수 없다.
- ② 경고 2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간 모든 권리와 권한이 정지된다.

3장 조직

11조(기본 구성)

본 연합은 각 지역 연합, 지부, 지회, 학연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중고등학생 참여단체(혹은 그 나이에 준하는 청소년 단체)의 연합체이다.

12조(기구)

- 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중앙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2. 지역대의원총회, 지역집행부회의, 지부대의원총회, 지부집행부회의, 지부장협의회
 3. 특별위원회

13조(참여단체)

본 연합은 일반 학생과 지회 외에, 중고등학생(혹은 그 나이에 준하는 자)이 직접 운영하고 본 연합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단체는 본 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

1.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국 단위의 동아리 모임, 웹진 모임, 학생회 모임
2. 지역중고등학생연합 지부: 해당 지역의 동아리 모임, 학생회 모임, 동호회
3. 각종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4. 기타 모임

1절. 중앙대의원대회

14조(성격과 권한)

- ① 중앙대의원대회는 본 연합의 주체인 회원의 위임을 받아, 조직 전반에 있어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 ② 중앙대의원대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약의 개정에 관한 의결
 2. 연간 계획 심의와 의결
 3. 분할, 해산에 관한 의결
 4. 중앙집행위원회 임원들의 탄핵·불신임에 관한 의결
 5. 중앙 재무의 결산
 6. 중앙집행위원회의 현 활동에 대한 심의와 권고
 7. 전국 규모 단체의 참여, 탈퇴 승인
 8. 위원장 유고 시 임시 위원장 선출
 9. 기타 중요한 사항

15조(구성)

중앙대의원대회 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 각 지역 연합장, 지회장, 지부장, 참여단체장, 특별위원장

16조(소집)

- ① 중앙대의원대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한차례 개최한다.
- ② 소집업무 집행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 ③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장은 즉시 중앙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원의 1/4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최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결정한 경우

17조(회의)

- ① 중앙대의원대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중앙 집행위원회 위원의 탄핵·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직의 분할·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장은 중앙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 탄핵에 관한 안건은 탄핵 발의자가 주재한다.

2절. 중앙집행위원회

18조(성격과 권한)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집행, 조율하고, 감독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합 전반의 운영
 2.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전반적인 감독
 3. 중앙대의원대회의 소집 업무 집행, 안건의 정리, 정기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4. 연합의 목적과 취지, 중앙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활동과 사업을 결정, 집행
 5. 중앙 재무의 예산 편성, 집행
 6. 운영 세칙의 제정과 개정, 폐정
 7. 회원 징계, 포상
 8. 운영 부서, 사업국, 특별위원회의 임시 설치
 9. 참여단체와 협의하여 연합과정 집행
 10. 외부 단체와의 연대 결정, 지역연합·지부별 연대 승인

19조(구성)

중앙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2. 중앙 운영부서 장, 중앙 사업국장
3. 각 지역장

20조(소집 및 회의)

-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달 1회 연다.
- ②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집행위원회 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절. 지역 중고등학생연합

21조(성격)

지역 중고등학생연합은 지역별로 자치적인 운영을 하며, 지회와 지부, 참여단체가 모여서 구성된다.

22조(창립)

- ① 지역 중고등학생연합은 특별시·광역시·도 별로 창립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에 창립한 지역 중고등학생연합(시 지역연합)은 지회 3개 이상, 발기인 20명 이상, 지역 연합장의 선출 및 지역 집행부의 결성으로 한다.
- ③ 도에 창립한 중고등학생연합(도 지역연합)은 지부 2개 이상, 지회 3개 이상, 발기인 20명 이상, 지역 연합장의 선출로 한다.
- ④ 창립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중앙집행위원회와 접촉 및 논의하여 ‘~지역연합(준)’을 설치하여 창립을 준비할 수 있다.

23조(운영)

- ① 시 지역 연합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며, 집행부회의 의장을 맡고 지역연합을 대표하는 지역 연합장 1인, 재무 담당자, 관리 담당자, 편집 담당자를 둔다.
- ② 도 지역 연합은 독자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관할 지역을 대표한다. 지역 연합을 대표하는 지역 연합장 1인을 둔다.
- ③ 시 지역 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지역 대의원총회
 2. 지역 집행부회의
 3. 특별위원회
- ④ 도 지역 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지역 대의원총회
 2. 지부장 협의회
 3. 특별위원회

24조(지역 대의원총회의 성격과 권한)

- ① 지역 대의원총회는 지역 연합의 의결기구로서, 지역 연합 조직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 ② 시 지역 대의원총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연합의 각 분기별 사업 계획 심의와 의결
 2. 지역 집행부 위원들의 탄핵 · 불신임
 3. 지역 연합의 재무 결산
 4. 지역 집행부의 현 활동에 대한 심의와 권고
 5. 지역 집행부회의 산하에 운영 부서, 사업국, 특별위원회의 설치 승인
 6. 참여단체의 참여, 탈퇴 승인
- ③ 도 지역 대의원총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연합장의 탄핵 · 불신임
 2. 참여단체의 참여, 탈퇴 승인
 3. 특별위원회의 설치 승인

25조(지역 대의원총회의 구성)

지역 대의원총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연합장
2. 집행부원(시 지역의 경우)
3. 해당 지역의 지회장, 지부장, 참여단체장
4. 특별 위원회 위원장

26조(지역 대의원총회의 소집)

- ① 시 지역 대의원총회는 매월 한차례 개최하고, 도 지역 대의원총회는 매년 한차례 개최한다.
- ② 소집업무집행은 시 지역의 경우 지역 집행부, 도 지역의 경우 지역 연합장이 담당한다.
- ③ 다음의 경우, 지역 연합장은 즉시 지역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원 1/4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시 지역의 경우) 지역 집행부회의에서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27조(지역 대의원총회의 회의)

- ① 지역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집행 부원의 탄핵 ·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역장은 지역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장의 탄핵에 관련된 안건은 탄핵 발의자가 주재한다.

28조(지역 집행부회의의 성격과 권한)

- ① 지역 집행부회의는 지역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지역 연합의 업무와 활동을 결정, 감독한다.
- ② 지역 집행부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지역 연합 전반의 운영
 2. 지역 대의원총회의 소집 업무 집행, 안건의 정리
 3. 연합의 목적과 취지나 중앙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활동과 사업을 결정, 집행
 4. 재무의 예산 편성, 집행
 5. 회원의 징계, 포상

6. 참여단체와 협의하여 연합과정 집행
7. 운영 부서, 사업국, 특별위원회의 임시 설치

29조(지역 집행부회의의 구성)

지역 집행부의 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연합장(집행부회의의 의장)
2. 각 운영 부서장, 사업국장

30조(지역 집행부회의의 소집 및 회의)

- ① 지역 집행부회의의 정기 회의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의장은 지역 연합장이 맡는다.
- ③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부 부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지역 집행부회의는 재적 집행부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집행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조(지부장 협의회)

- ① 지부장 협의회는 도 지역 연합 내 지부장들의 협의체 기구다.
- ② 지부장 협의회는 회원은 해당 지역 내 지부장과 지역 연합장이며, 지역 연합장이 회장을 맡는다.
- ③ 지부장 협의회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2.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부에 각종 지원
 3. 참여단체와 협의하여 연합과정 집행
 4. 특별위원회의 임시 설치
- ④ 정기 회의는 매 월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회원 1/4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⑤ 소집업무는 지역 연합장이 담당한다.

4절. 지부, 지회

32조(성격)

지부는 지회와 참여단체가 모여 구성되며, 지역 중고등학생연합을 구성한다.

33조(창립)

- ① 지부는 각 시, 군, 구 별로 창립하며, 설립 조건은 지회 1개 이상, 발기인 10인 이상, 지부 집행부의 결성이다.
- ② 시 지역 연합 내 지부는 해당 지역 연합이 설치하며, 도 지역 연합 내 지부는 자치적으로 창립한다.
- ③ 창립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역 집행부회의, 지부장 협의회 혹은 중앙 집행위원회와 접촉 및 논의하여 '~지부(준)'을 설치하여 창립을 준비할 수 있다.

34조(운영)

- ① 각 지부는 독자적인 운영을 하며, 관할 지역을 대표한다. 지부 집행부회의의 의장을 맡고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 1인과 재무 담당, 관리 담당, 편집담당을 둔다.
- ② 각 지부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지부 대의원총회
 2. 지부 집행부회의
 3. 특별 위원회

35조(지부 대의원총회의 성격, 구성, 권한)

- ① 지부 대의원총회는 지부의 주요 의결기구로서 지부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 ②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집행부원
 2. 지회장
 3. 특별위원회 위원장
 4. 참여단체장
- ③ 지부 대의원총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 분기별 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
 2. 지부 집행부원의 탄핵·불신임 의결
 3. 지부의 재무 결산

4. 지부 집행부의 현 활동에 대한 심의와 권고
5. 운영 부서, 사업국, 특별위원회의 설치 승인
6. 참여단체의 참여, 탈퇴 승인

36조(지부 대의원총회의 소집, 회의)

- ① 지부 대의원총회는 매월 한차례 개최한다.
- ② 소집업무 집행은 지부 집행부가 담당한다.
- ③ 다음과 같은 경우, 지부장은 즉시 지역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원의 1/4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지부 집행부에서 지부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④ 지부장은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⑤ 지부장 탄핵에 관한 안건은 탄핵 발의자가 주재한다.

37조(지부 집행부회의의 성격, 구성, 권한)

- ① 지부 집행부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지부의 업무와 활동을 결정, 감독한다.
- ② 지부 집행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2. 운영 부서장, 사업국장
- ③ 지부 집행부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지부 전반의 운영
 2. 지부 대의원총회의 소집 업무 집행, 안건의 정리
 3. 연합의 목적과 취지나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활동과 사업을 결정, 집행
 4. 재무의 예산 편성, 집행
 5. 회원 징계, 포상
 6. 참여단체와 협의하여 연합과정 집행

38조(지부 집행부회의의 소집 및 회의)

- ① 지부 집행부회의의 정규회의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의장은 지부장이 맡는다.
-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집행부 위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집행부회의는 재적 집행부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집행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조(지회 성격과 설립)

지회는 각급 학교별로 설립하며, 학생연합의 전체 조직을 구성하는 핵심단위이다.

5절. 특별위원회

40조(특별위원회의 성격)

특별위원회는 각 중앙 집행위원회, 지역 연합 집행부회의, 지부장 협의회, 지부 집행부회의 산하에 설치하며, 각종 운영 보조 업무,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

41조(특별위원회의 운영, 권한, 운영 규정, 기타 사항)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운영 규정, 기타사항은 설치 담당 기구가 설정한다.

6절. 임 원

42조(중앙집행위원장)

-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조직 전반의 책임을 진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정규회원 총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중앙집행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명하지 않았다면 중앙 관리담당 부서장, 재무 담당 부서장, 편집 담당 부서장, 관할 내 지회가 많은 순서의 지역연합장의 순서로 위원장 대행권이 부여된다.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가능한 빨리 중앙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⑤ 중앙집행위원장 선거는 현 중앙집행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한다. 단, 위원장 유고 시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구성한다.

43조(지역 연합장, 지부장)

- ① 지역 연합장과 지부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해당 조직 전반의 책임을 진다.
- ② 지역 연합장과 지부장의 임기는 6개월이며 재임할 수 있다.
- ③ 지역 연합장과 지부장은 해당 지역 내 정규회원의 총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지역 연합장이나 지부장의 유고 시, 관리담당 부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가능한 빨리 지역 대의원총회나 지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현 지역 연합장이나 지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한다. 단, 유고 시 지역 대의원총회나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구성한다.

44조(운영 부서장과 사업국장)

- ① 운영 부서장과 사업국장은 각 부서와 국의 대표로, 운영의 책임을 진다.
- ② 운영 부서장과 사업국장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 부서장과 사업국장은 해당 부서, 국을 구성한 정규회원의 총 투표로 선출한다.

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대표로, 운영의 책임을 진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상부기구에서 담당한다.
- ③ 성인 자원활동가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나 대의원총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

4장 재정

46조(재원)

본 연합의 재원은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47조(회비)

회비는 학생연합을 운영하는 기초 자금으로,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48조(재정의 운영)

- ① 지역 대의원총회, 지부 대의원총회는 각 분기별로, 중앙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 감사위원 3인을 선출하여 결산을 감사한다.
- ② 정규 회원과 성인자원활동가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속 지역의 지부, 지역연합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
- ③ 후원회비는 중앙에서 관리하며, 중앙의 운영과 각종 사업의 지원에 쓰인다.

49조(재정의 감사)

재정의 감사는 분기별 3인의 회계감사원을 대의원기구에서 선출하여 시행하고, 대의원기구에 보고한다.

5장 해산

50조(해산)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본 연합은 해산한다.

1. 본 규약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했을 때
2. 모든 회원이 탈퇴했을 때

부 칙

1조(시행일)

규약을 결의하고, 위원장이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규약, 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청소년 자치활동 10문 10답

1. 동아리는 어떻게 만드나?

66 먼저 관심사가 같은 몇몇 친구들끼리 모여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해보겠다는 의사를 모은 다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잘 정리해 다른 친구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합니다. 그런 다음 첫 모임을 잡고 동아리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회칙 정하기, 임원 선출하기, 회비 정하기, 자치모임의 조직모형 만들기, 사업계획 정하기 등이 여기에 들겠지요.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그날이 바로 동아리 생일이 된답니다. 매년 동아리 생일이 되면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지요. 총회자리에서는 1년 활동 평가와 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해 주로 논의한답니다. 99

2. 관심사만 같으면 다 자치활동인가?

66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진회 같은 모임을 만들 때 이것을 자치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청소년들이 활동주체가 되어 모임운동을 직접 하니, 자치활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공동선을 헤치는 모임을 우리는 선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범죄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자치활동이 가져야할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선배의 일방적인 진행방식이나 후배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 또는 학생회는 어떠한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9

3. 프로그램 기획이 뭐야?

66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멋진 말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노력 또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주변 학교축제 때 보았던 동아리의 새로운 형태의 발표회를 보면서 자신들도 따라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1. 새전운데모임진행
II. 홍보 및 선입회원 모집
III. 총회(운영차제)
IV. 실행
V. 활동평가

I. 조사 및 연구
II. 회의 - 결정
III. 시행
IV. 평가를 통한 더 나은 기획

우선 다른 동아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각자가 고민해서 정리한 것을 갖고 회의를 할 때와 다른, 생동감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돌아본 다음 회의를 했을 때 서로 느낀 바가 달라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고, 또 그런 준비된 회의 속에서 가장 참신한 의견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쌓이고 또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기획력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99

4.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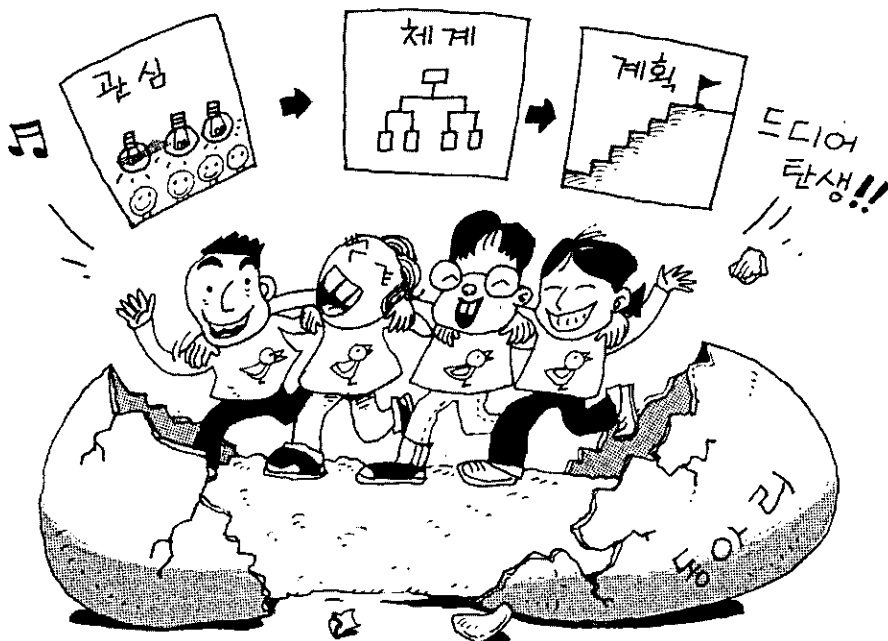
66 서로 아무런 고민없이 회의를 한다면 탁상공론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과 함께 준비된 회의를 해야겠지요. 우선 사전에 회의 때 논의 되어야할 안건을 상정하고 각자가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는게 좋습니다. 신문자료 찾기,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보조자료를 만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훨씬 설득력도 있고 안건을 보다 집중해서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귀찮은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고 투덜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듯 충분한 회의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각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는 반드시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선배들이 말을 많이 하고 후배들은 거의 듣고만 있게 되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도 사전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선배들의 일방적 회의 진행은 경직된 동아리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도 안되구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의는 이미 죽은 회의나 다름없는데 선배들의 일방적 회의 진행은 이런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답니다. 이 것을 막기 위해 회의 때 서로 존칭을 사용한다거나 모두가 발언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회의진행을 잘 해야겠지요. 99

5.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지?

66 우리는 흔히들 돈이 필요할 때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지출이 늘기 마련이지요. 학교에서 돈을 마음껏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열렬히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야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동아리 단체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의 집단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벌로 제

작한 단체복은 주위 선후배나 동기생들에게 조금씩의 이윤을 남겨 판매를 하고 나면 활동비를 모을 수 있게 되지요. 다만 장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걸끄럽긴 하겠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해 보세요. 기념품은 가방에 달고 다니는 버튼이나 뿔자를 비롯해 손수건, 학용품, 엽서 등 다양한 품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 학생회에서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가 있지요. 이 수익금은 축제 때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학교축제에는 자기 학교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수익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의 없이 만들어 강매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성의 있게 설명하여 순수한 뜻에 동의하는 의미로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학교망신 뿐만 아니라 자치활동이 자칫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장사의 하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사실, 명심하구요. 세 번째 방법은 재활용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음료수 빈 병 하나가 20원이지요. '껌값' 보다도 적은 '병값'이 무슨 돈이 되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점에서 하루에 나오는 빈병은 최소 '한짝' 정도는 될 겁니다. 한짝에 30병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한달 빈병값은 만 오 천원을 넘지요. 그리고 재활용 종이를 모아 고물상에 팔면 다만 얼마라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한푼이 아쉬운 판에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99

1. 의미
 2. 단체복 제작
 3. 기념품 판매
 4. 재활용품 수집



6. 홍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66 홍보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행사 안내지를 나눠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때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나가 직접 한 명씩 붙잡고 설명하는 적극적인 홍보방식을 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아리나 여타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할 때나 설문조사를 할 때 보통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요. 이것 말고도 캠페인 형식의 홍보도 있습니다. 그 집단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거나 피켓을 만든다거나 플래카드를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행사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문구가 적힌 의상을 입고 다니는 것도 행사 중 훌륭한 홍보방식이 되지요. 어쨌든 홍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구안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 창조성을 발휘해 보세요. 99

- i. 포스터
- ii. 피켓
- iii. 플래카드
- iv. 의상(가발 등)

7. 활동공간이 없어서 고민이네?

66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방과후 활동을 장려하면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요. 학교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렇다고 활동을 그만둘 수도 없을 때 매우 난감할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습니다. 먼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물론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련관 프로그램을 동아리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활용하면 장소문제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련관에 있는 모임방을 예약하여 사용하면 회의공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편의 시설로 바꾼 것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회의실이 있고 자치센터마다 준비한 컴퓨터, 독서실, 서예, 바둑, 꽃꽂이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 공부방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위와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기타 복지시설을 활용해 보세요. 이런 공간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공연 연습장소이지요. 사실 당일 행사전날에 리허설 형태로만 접할 수 있는 무대는 너무나 낯설어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연극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대본을 정말 잘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의 낯설음 때문에 고생한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적절한 공간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들로 만들어 보길 기대합니다. 99

- i. 청소년단체
- ii. 청소년수련관
- iii. 청소년 문화의 집
- iv. 청소년공부방
- v. 기타 복지시설
- vi. 주민자치센터

8. 동아리의 맥은 어떻게 이어가지?

66 동아리(자치활동)의 맥(전통성)을 잊지 못하는 것은 동아리의 생명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야 되는데 자신들 기수에서만 존재하고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그만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맥이 끊기는 원인을 찾아보면 비민주적인 운영과 선배의 권위적인 모습, 적극적이지 못한 참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힘들다거나 잘 안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선후배간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떠나 함께 공동체를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다보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때 선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배들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보다 고민의 여지나 활동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후배들에게 요구한다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만 앞세워 고집을 피운다면 쌓이는 건 나쁜 감정이고 생기는 건 불신뿐입니다. 이럴 때는 선배들이 차분하게 후배들의 어려운 점들을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선배의 넓은 아량으로 후배들과 대화를 합시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만 할게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후배들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한다면 선배들과의 주기적인 만남과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세하게 한가지씩 가르쳐주면 못할 일이 없을 테고 따르지 않을 후배는 없을 겁니다. 따뜻한 사람의 정이 넘치는 공동체일수록 그 생명력은 오래갑니다. 자치활동도 사람이 모여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99

9. 지도교사는 뭐하지?

66 현행 학교 동아리활동에서는 교칙상 지도교사가 없는 동아리는 비공식동아리가 됩니다. 잘 활동하다가도 지도교사를 섭외하지 못해 동아리활동을 중단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치활동이란 취지에서 봤을 때 지도교사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관리 대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필수조항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치활동을 지도교사의 의지대로 이끌어가게 내버려 둘 순 없는 노릇이지요. 어디까지나 자치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해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지도교사는 선배보다 더 나이 많은 선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청소년들은 선배에게 조언을 듣는 수준에서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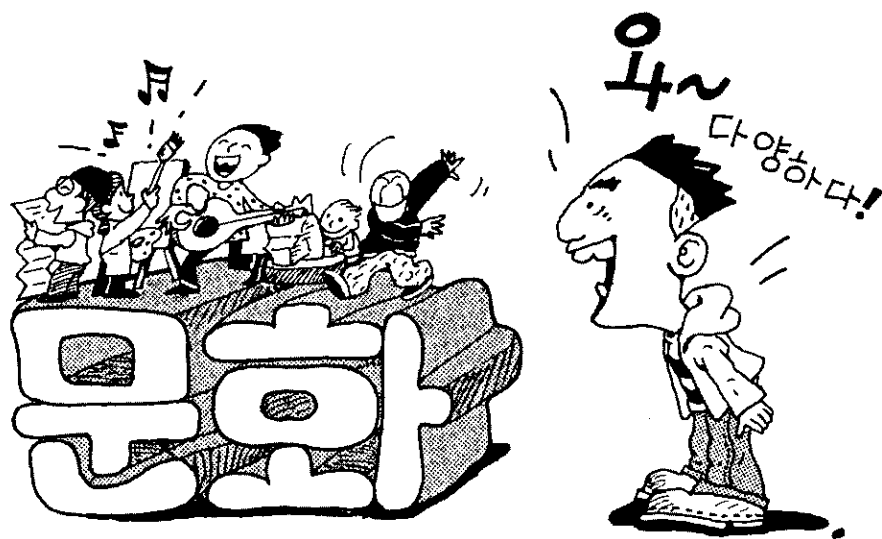
I. 진솔한 대화
II. 따뜻한 인간적 정
III. 주기적 교양

I. 지도교사의 민주적인 지도방식
II. 조언자의 역할
III. 자주적 활동 보장

서 지도교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을 임의대로 배치한다거나 청소년들의 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그동안의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지요. 지도교사에 대한 불신을 시작으로 활동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청소년 내부에 지도교사파와 반지도교사파로 분리되어 중국에는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치활동의 원칙을 어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치활동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도 민주적이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교사는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들 자신의 것이 되도록 청소년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나머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발 앞을 내다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 조언해 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소년 여러분의 연령이 낮거나 혹은 경험이 없어 여러분들의 역량이 아직 부족 할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역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도교사의 역할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자치활동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스스로 사고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후를 생각했을 때도 바람직하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99

10. 어떤 마음으로 활동해야 하나?

56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치활동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생활입니다. 공동체란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개인주의와는 친해질 수가 없지요. 자기보다는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을 더 생각해야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굶어죽어 가는데 자기만 배부르겠다고 먹을 것을 혼자 먹는다면 어떨까요? 그도 결국 혼자 외롭게 죽고 말겠지요. 공동체도 사람 사는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민주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실성과 책임성, 창조성, 연대성, 계승성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성실성이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후배를 돌보는 모습을 책임성이라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창조성이라 하고, 자족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더 많은 청소년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연대성이라 하며, 기수를 이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을 계승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자치활동을 졸업하여 훌륭한 사회적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99



제2장 우리동네에서 신나는 문화축제를 만들어보자!

-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만들기 -

글을 둘러가기 전에...

생~~ 문화는 무엇이고 지역사회 축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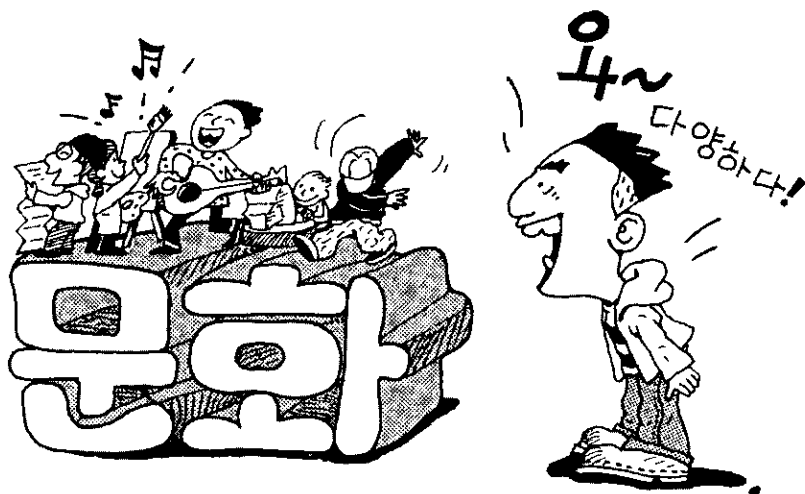
1. 청소년과 문화

청소년문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숙제를 위해 질문의 주인공인 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되물어 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여러분들 중에 이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란 것은 시대에 따라 또는 집단의 시각에 따라 그 정의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란 것은 어떤 때는 사람들 사이의 권력 싸움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고, 힘없는 사람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유일한 표현이기도 했지요. 또 문화란 단어에는 고급문화, 대중문화, 사이버문화, 청소년문화 등 많은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정말 머리 아픈 일이겠죠?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문화는 다양한 집단간의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을 좋다 나쁘다라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직한 문화란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가 록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일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화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 친구들 모두 힙합만을 좋아하고 록음악은 싫어한다고 한다면 축제 프로그램에 록음악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힘들겠죠? 하지만 축제에는 각기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양한 축제를 만들고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나이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의 표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표현을 넓혀 가는 것이 좋은 문화가 아닐까”라고 이 연사 힘차게 힘차게 외쳐봅니다.

머리 아프다구요? 이제 문화 이야기는 그만하지요. 대신 더 깊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문화에 관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도 보고, 신문이나 자료를 뒤져보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읽어보면 좋은 책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김창남(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 아카데미.
 조한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문화연대 편집위원회(2001). 당신의 문화 쾌적 하십니까?. 문화과학사.
 계간지.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 찾아보면 좋은 사이트 ♣

문화연대 : www.cncr.or.kr
 미디어교육 프로젝트팀 헤모 : www.freechal.com/hemo/
 미지센터 : www.mizy.net
 서울청소년정보문화센터 스스로넷 : www.ssro.net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 www.pumdongi.org
 하자센터 : www.haja.net
 한국청소년개발원 : www.youthnet.re.kr
 한국청소년인터넷방송국 KYBC : www.kybc.org



2. 지역사회 문화축제

축제... 우와~~ 축제란 무엇인가? 일단 축제는 신나게, 재밌게, 여럿이 노는 것!

네! 맞습니다. 축제는 신나게 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럿이 노는 것이지요.

근데 축제란 것도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 형태나 정의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명동축제도 있고, 연극축제도 있고, 장남감축제도 있고, 심지어는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처럼 특별한 주제가 있는 축제도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만들어보는 지역사회 문화축제도 빠뜨릴 수 없겠지요?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축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결국은 상품만을 팔려고 하는 상업적 축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축제 중에 가장 좋은 축제라면 역시 친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친구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가 가장 신나는 축제이겠지요. 이러한 축제들 중에 집과 학교와 놀이공간이 융기종기 모여있는 지역사회 축제, 동네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사회 축제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장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것 하나 / 집, 학교, 학원, 놀이공간 등과 가깝다. (공간과 시간의 편의성)

좋은 것 두술 / 일상생활과 연결된다. (일상의 연결성)

좋은 것 세엿 / 잘만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자원의 다양성)

좋은 것 네엿 / 학교와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또래간의 공동체성)

좋은 것 다섯 / 동네 아저씨, 옆집 아줌마와도 함께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다양성)

좋은 것 여섯 / 어설픈 아마추어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등수를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도 재미 있다. (참여와 기회의 용이성)

그 밖 세 / 축제의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 잘못해도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곳곳에 작은 축제들이 모여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신나는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축제 만들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MISSION들을 자~알 수행한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축제 기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 연사 열나게 ! 열나게 ! 외칩니다. ~~

잠깐 III

청소년문화와 축제에 있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는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학습하고, 또 갖가지의 지식과 정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나 매스컴, 상업적 이벤트를 모방만 한다면 '잘 꾸미고, 잘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을 해서는 안됩니다. 엉성하고, 부족하더라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합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문화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욕구,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고민도 축제에 함께 고민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른들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거부한 채 청소년들만의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축제의 열쇠는 '다양한 의사소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한번은 꼭 고민해봅시다.

3.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만들기 A부터 Z까지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화축제 만들기의 바른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고, 뜻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 잘 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으왕~~~ 축제 만드는데 공부하라고요~~~ 절대 안되지!!” 라고 하겠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 하는 공부, 그리고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체험하는 공부는 재미있지 않을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며 분석 해보는 것도 지겨운 공부일까요? 정말 잘 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준다면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몰라서 서성거릴 수 있습니다. 결국 멋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보 수집은 필수 조건이다!

우선 축제진행의 경험에 상관없이 축제와 관련된 정보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빠르고 쉬운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하면 좋겠지요. 축제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정보수집 내용이 다르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정보수집 내용을 살펴볼까요?

(1) 다른 지역의 청소년문화축제를 찾아본다.

요즘은 대도시는 물론 작은 지역단위에서도 청소년축제를 여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청소년축제라는 검색어로 검색할 수도 있고, 지역신문이나 잡지 등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사전에 축제일시를 알아보고 직접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하고, 좋은 지역축제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진행되는 축제의 현장(각 마당, 무대진행, 자원봉사 운영, 예산, 홍보, 준비과정, 교육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를 해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2)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정보를 수집한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역의 정보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여는 지역의 정보를 모른다면 훌륭한 축제가 되기 힘들겠지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은 곧바로 훌륭한 자원으로 연결되니까요. [관공서, 지역단체, 청소년수련관, 학교, 동아리, 교육청, 공부방, 구민회관, 종교단체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준비하려는 축제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는 축제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청소년기획단은 축제의 기둥이다!

아무리 많은 인원과 예산과 프로그램이 있는 축제라 하여도 청소년의 참여가 없는 축제는 청소년 축제가 아닌 것처럼,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에는 반드시 청소년 기획단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각 학교의 대표도 좋고, 동아리 대표도 좋고, 축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도 좋고, 아무튼 축제기획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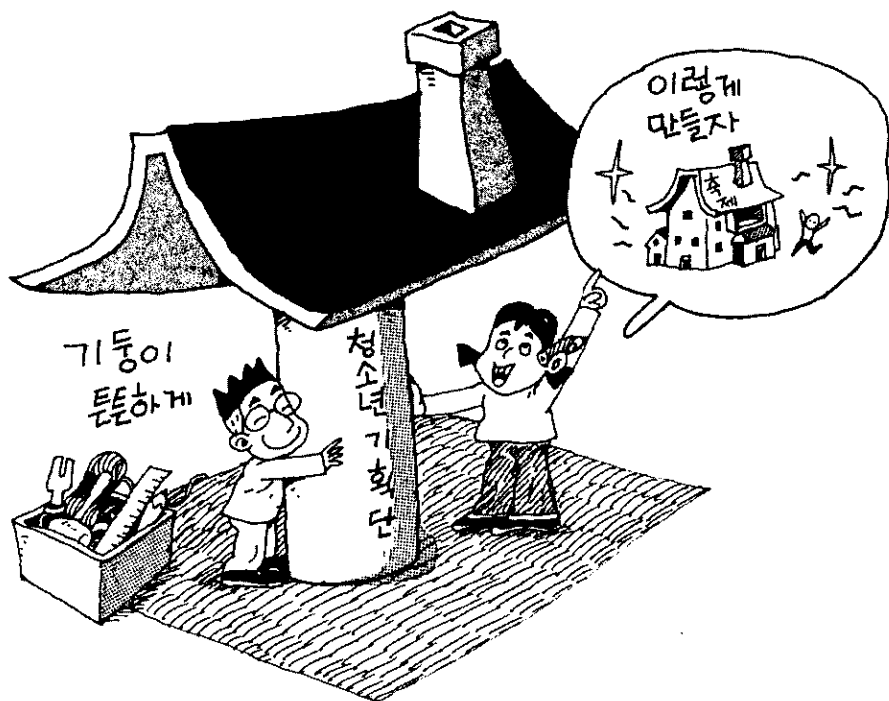


❖ 찾아가 볼만한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

- ▶ '김제시 청소년 문화축전' :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리며 김제지역 청소년과 지역 단체,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만드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 들이 만들어가는 청소년축제이기도 하지요.
[연락처 / 주관단체인 김제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063) 543-5007]
- ▶ '청소년 스스로 문화제 [난리국]' : 서울 성북지역의 청소년과 지역단체연합에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준비하는 멋진 축제입니다.
매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열리며 장소는 항상 '성신여대 앞 사거리' 에서 열렸습니다.
[연락처 / 성북지역 단체연합인 성북복지연대로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911-9521]
- ▶ '청소년들의 문화한마당' : 대전지역에서 오랫동안 열려온 청소년축제로 역시 지역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만드는 지역문화축제입니다. 매년 11월에 진행됩니다.
[연락처 / 주관단체인 대전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42) 221-7098]
- ▶ '강북청소년문화축제' : 서울 강북·도봉 지역의 청소년과 지역단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청소년기획단이 축제를 운영합니다. 98년부터 매년 있어 왔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축제 보고서가 나와 있어 보고서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처 / 주관단체인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 02) 999-9887 / home page는 www.pumdongi.org, 담당 김형미 선생님]

하며 그 기획단은 단계별로 계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획단의 기본 조건을 생각해 볼까요?

- 기획단은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획단은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 기획단 운영을 위해서는 축제에 필요한 교육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문화, 축제, 기획에 필요한 공부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 기획단 내에서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기획단은 축제의 준비과정으로부터 진행 평가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 청소년문화, 축제, 기획에 관한 친절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 ♣

- ▶ 안이영노 (문화기획 전문가, 허벅지밴드) : lifeventure@hanmail.net, 011-665-1207
[청소년문화, 축제, 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모형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축제기획의 자문도 가능합니다.]
- ▶ 김태황 (미지센터 청소년팀장) : flyshoe@mizy.net, 016-716-4587
[미디어 관련 전문가이며, 축제기획 전문가입니다. 축제기획이나 미디어 교육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김형미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지역축제 담당) : wanjias@hanmail.net, 019-656-6206
[지역축제를 담당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박상영 (여해문화공간 대표) : 011-9911-2890
[미디어/교육연극 전문가이며, 문화기획 전문가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은 분입니다.]
- ▶ 이승민 (인천카톨릭청소년회관 팀장) : mrpuppy@hanmail.net, 011-9637-0224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이며,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승환 (청소년미래신문대표) : 019-255-1318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이며, 지역활동에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 ▶ 정아용 (성북복지연대) : sbcmhc@chollian.net, 018-228-6470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들과 함께 축제진행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 ▶ 이동연 (문화평론가, 문화연대) sangyeun@hitel.net
[문화관련 이론에 전문가이며, 문화관련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혜영 (강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팀장) : hyrmit@hanmail.net, 011-668-1992
[문화기획 전문가이며,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청소년 축제 기획단 운영 사례 : 2001년 강북청소년문화축제 기획단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기획단 노을자 활동

1. 축제 진행과정

프로그램	일시	주요내용
명동청소년거리축제 모니터링	5/26	명동청소년거리축제 봉행사 모니터 및 촬영
발대식	6/17	명동거리축제 모니터 결과 발표, 추진위와 이야기나누기, 인증서 수여
기획교육	6/24	청소년 문화, 그리고 축제 : 교육 - 심하기
기획모임	7/15~9/7 총 20여회 모임	축제 주제 논의 및 명칭 결정 : 秋樂 축제 장소 답사 : 미아역, 신일고 답사 및 행사장 배치 기획단 역할분담 : 전시·참여·문화제마당·홍보팀으로 역할분담 축제 세부기획 참가동아리 대표자 모임,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임 준비, 진행
평가회	9/16	축제 전체 평가 - 기획단 운영 및 활동 평가 - 축제 프로그램 및 준비과정, 제반사항 평가 - 참가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

2. 축제 진행 후 활동계획

- ▶ 노을자 단합대회 : 11월 중 M.T 예정
- ▶ 행사 staff 활동 : 서울시 청소년연극축제 등 행사 자원봉사 예정
- ▶ 기타 기획실습 : 청소년 행사, 캠프 등 기획 예정
- ▶ 2002년 축제 기획단원 모집
 - 2001년 축제에 참가했던 참가동아리 회원과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모집 예정
 - 11월, 12월 중 모집 공고 및 면접실시, 기획단원 확정



3) 날아다니는 아이디어와 주제를 잡아라!

지역청소년 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의 주제를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나게 노는 것 안에는 뭔가 의미 있는 주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표현하고 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화축제의 과정과 결과에는 “왜! 우리는 축제를 하는가?”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과 주제를 잡기 위해서는 기획단은 물론 함께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와 축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에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축제의 주제는 지역과 환경과 상황과 대상에 따라 늘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또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보면 의미 있는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엔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어 늘 불만일 경우 ‘청소년문화공간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축제를 열어볼 수도 있고, 우리지역 학교의 동아리들이 평소 자신들의 기량을 발표할 기회가 없다면 우리지역동아리축제를 열 수도 있고, 특정한 분야의 동아리 축제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을 살린 ‘지역전통축제’를 기획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고민을 통해 목적과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면 축제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4) 지역사회를 텅텅!

주유소를 텅텅! 라는 영화 제목처럼 지역사회 안에는 확실한 ‘도움꺼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행정, 홍보, 예산, 섭외, 진행과 운영에 필요한 막강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자원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와 세대간의 이해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꺼리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텅텅볼까요?

(1) 지역단체를 찾아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단체,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진정한 지역청소년문화축제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체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막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단체 중에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열리는 지역청소년축제를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청소년과 지역의 단체가 함께 하는 축제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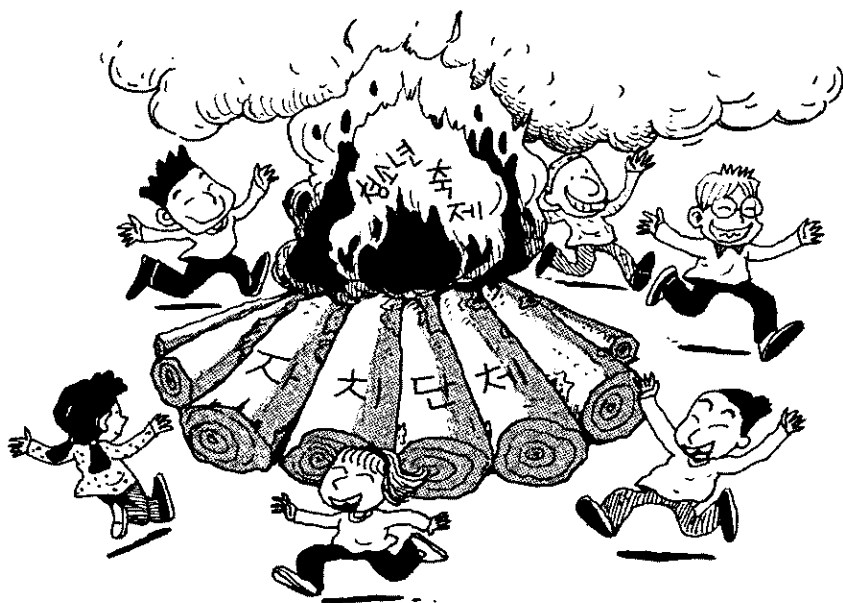
처음부터 지역단체와 함께 축제를 기획할 수도 있고, 친구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축제의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단체를 찾아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눈다면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이해와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많지 않을뿐더러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대도시의 각 구청, 군청 등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상세한 내용은 1권 제3장의 ‘지역사회의 청소년자원과 활용’과 ‘부록’을 꼭 읽어보세요)에는 어느 곳 이든지 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가정복지과가 그 대표부서이기도 하지만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서에는 매년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구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활동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청소년축제를 위한 계획을 들고 자치단체의 문을 두드리면 뭔가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공적인 사업에만 돈을 쓰기에 청소년 개개인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만의 공식 단체나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단체와 함께 한다면 참가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협조와 시설 및 장비 협조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곳이며, 단순한 협조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청소년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동반자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

▶ 행정협조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등에 협조를 받을 시에는 구청의 행정협조 공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통제하거나, 교통정리가 필요하거나, 안전관리 등.. 그 밖에 교육청이나 학교의 참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 시설협조

자치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구민회관, 동사무소 강당, 기타 시설의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사용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비협조

축제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대형천막, 전시용 이젤, 또는 이동용 야외 화장실 협조에 대한 협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자치단체나 지역단체 등 공식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축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계획안(목적, 일시, 장소, 내용, 협조사항 등)과 공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에는 전화로 담당자와 약속을 하는 것도 잊지 말기를....

협조 공문 사례

2001년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기획단

문서번호 축제 01 - 11

시행일자: 2001. 8. 29.

수 신: 북부경찰서장

참 조: 교통과장

제 목: 2001년도 강북청소년문화축제 행사장 차량통제 협조의 건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기획단은 강북, 도봉지역 청소년들의 문화를 건강하고 주체적인 문화로 이끌어가고 지역 내의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북, 도봉지역에 거주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중고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청소년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기획단입니다.
3. 2001년도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실시를 위해 아래와 같이 행사장 차량 통제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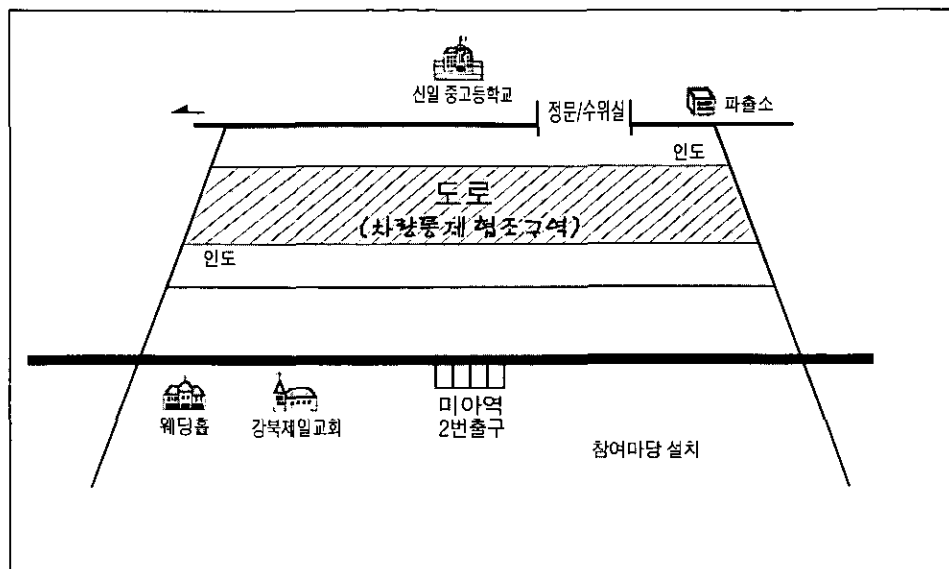
1. 행 사 명: 제4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2. 일 시: 2001년 9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9시
3. 장 소: 미아역 ~ 신일고등학교 운동장 주변
4. 참가대상: 강북지역 내 청소년 문화활동 동아리 및 학교CA반 청소년 및 강북지역 주민 약 1,000여명
5. 차량통제협조: 구역: 신일고등학교 정문앞 도로(신일고 앞 ~ 예식장까지)
시간: 오후 2시 ~ 오후 6시

붙 임: 1. 행사장 차량 통제 협조구역 세부사항 1부.

2. 2001년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안내문 및 행사당일 기획안 1부. 끝.

2001년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기획단

[행사장 차량통제 협조구역 세부내용]



(3) 돈이 없으면 축제를 못한다?

돈이 없으면 축제를 못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많은 돈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장비와 인력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그 장비와 인력을 지역사회 자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훌륭한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재미있게 만드는 축제”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돈이 없음은 지역사회 안에서 최소한 비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밝힌 자치단체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축제의 뜻과 의미가 있다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기업이나 많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상가번영회’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도 문을 두드리려 볼 수 있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뜻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축제 준비의 매력이었지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예산을 받을 수 없다면(노력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본인의 생각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만약 ..)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땀으로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금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일천원 가요제’나 ‘이천원 영화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축제는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은 희망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는 긴 시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진정한 자원은 바로 청소년 자신들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힘과 자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 안의 많은 친구들의 참여가 없다면 청소년문화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축제의 50%는 성공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축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축제에 참여하는 각 분야의 동아리, 축제를 운영하는 기획단,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일들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계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제의 홍보는 물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자치단체나 지역단체, 청소년수련관, 학교 등의 자원들과 연계하는 일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축제 만들기를 위한 가장 큰 스승은 '경험'입니다. 실패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경험들이 바로 축제의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결국 청소년축제에 실패란 없는 것이지요. 못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

처음부터 대규모의 축제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발표회나 전시회, 캠페인 등을 활성화시킨 다음 그것들을 모아 커다란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면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많을 수도 있고, 큰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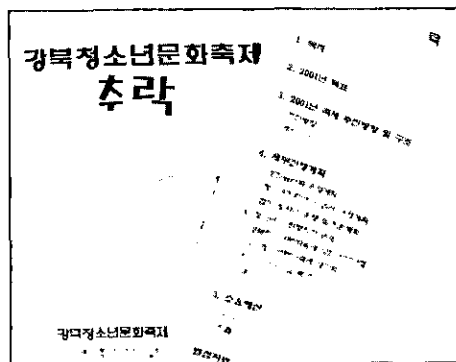
가까운 학교의 동아리들이 모여 강당을 빌리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조출한 발표회로 시작하거나 청소년들의 많이 다니는 거리에 전시회나 캠페인 등을 하는 것은 대규모의 축제를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됩니다. 작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팀을 조직하고, 홍보를 하고 다른 자원을 연결하는 일을 해본다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했지요?



축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

○ 기획서 만들기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협조를 구하고,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된 기획서가 필요합니다. 기획서를 만드는 것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축제의 이름, 축제의 주제, 축제의 목적, 장소, 날짜와 시간, 세부진행내용(program),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조직표, 참가자 명단, 예산, 홍보방법, 자원봉사계획, 축제 후 평가방법 등을 보기 좋게 문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제의 의도를 설명할 때나 홍보를 할 때에도 문서로 작성된 기획서는 꼭 있어야하겠죠?

○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은 필수과목!

작은 발표회를 갖더라도 그 과정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일은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의를 한다면 회의일기를 써보고, 단체나 사람을 섭외했다면 섭외일기를 써보고, 필요한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정리하는 일들을 해봅시다. 또한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에 반드시 평가를 해야합니다. 참여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기록을 꼭 남겨서 다음 축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과목임을 잊지 맙시다.

● 사람만이 희망이다!

축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물론이며 자치단체나 지역단체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다면, 축제는 살아나지 못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인사하고, 성심껏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의 힘도 사람이며, 축제의 꽃도 바로 사람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자기자신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임을 인정한다면 늘 연락하고, 설명하고, 인사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너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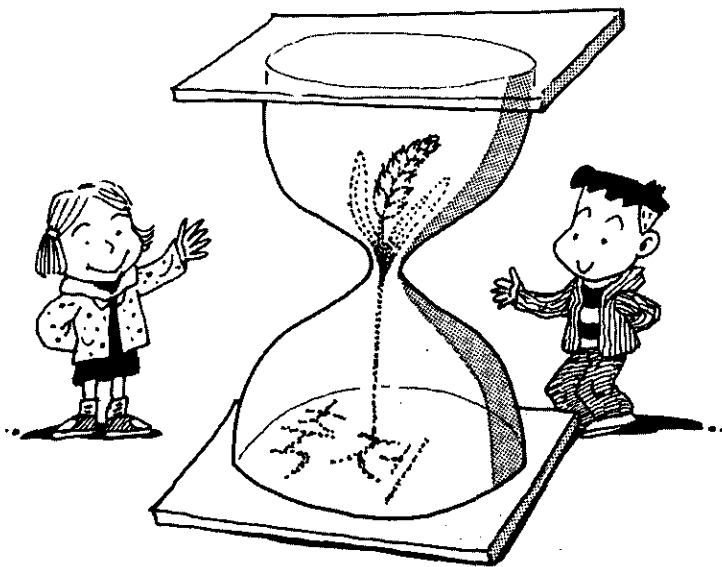
글 나내기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된다구요? 당연합니다. 축제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권의 책을 읽거나, 자료를 보고 당장 축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축제를 위한 가장 큰 스승은 경험이라고 말한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과 여러분의 생각을 합하여 축제를 위한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축제 만들기는 수능시험이 아닙니다. 즐겁게 놀고, 높이 날기 위한 행복한 작업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거짓없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의 따뜻함'을 몸으로 느끼길 바라며.....

청소년 축제



청소년 없는 청소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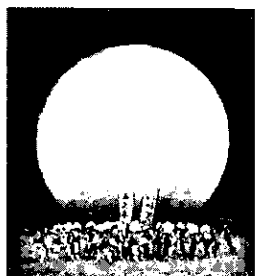


제3장 거리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한마당, 명동청소년거리축제

명동청소년거리축제

1. 축제! 그것이 궁금하다.

1년 내내 축제가 없는 달이 없습니다. 거리를 보아도 축제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발견하게 되구요. 학교에서도 종교기관에서도 축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축제가 뭐길래...



1) 축제는 놀기만 하는 겁니까?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고유한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어요.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맞이 곳이 벌어지는 모닥불 주변으로 모이지요. 그리고는 봉긋하게 달이 떠오를 때까지 풍물을 치며 한판 크게 놀입니다. 서서히 봉우리 사이로 휘영~청하고 달이 얼굴을 내밀면 그때 그 풍물굿은 절정에 이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쥐불놀이와 같은 놀이와 갖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비슷하게 보름이 되면 하는 축제가 또 있지요? '추석'입니다. 추석은 그와 조금 다르게 여름을 나고 난 뒤의 풍성하게 추수한 곡식과 생산물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농경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추수한 생산물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답니다.

미국에는 작은 축제지만 '자동차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직접 조립한 자동차도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 축제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안 기름치고 잘 관리한 자동차를 선보인 사람에게 상패를 줍니다. 그 상패도 값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3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축제를 위해 1년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리를 달려옵니다. 순수 자비를 들여서요.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동차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의 서구인들은 죽은 다음의 영혼의 세계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일은 모든 죽은이의 날(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라고 합니다)이구요. 그 이브인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할로윈' 축제를 열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죽은 영혼들을 보살피라는 기도와 함께 이런 축제는 놀이로도 자리잡아서 어린이들의 익살이 함께 하는 맛있는 캔디(각종 과자류)를 맘껏 먹을 수 있는 날이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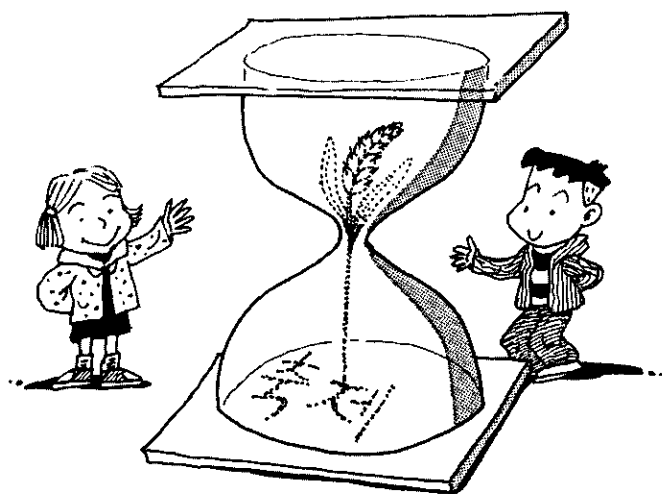
이러한 축제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찾아보면 우리의 축제에도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건 준비된 생산자의 자축이며 자랑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약속입니다.

생산자의 자축이란 것은 축제에서는 무언가 보여주고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를 준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물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생산만 잔뜩 해 놓고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걸 보고 공황이라고 하듯이 문화나 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비는 곧 생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축제...축제는 소비적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소비하기 위해 담아내는 그릇이 문제가 되겠지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있는 소비에서부터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축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청소년축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청소년에게 축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문화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축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를 생산하지 않으면 청소년문화축제의 생산은 있을 수 없구요, 소비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겠지요. 더구나 청소년의 많은 인구가 학교에 매어있다면 학교이외의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소년의 일상으로부터 문화생산의 기회를 만들고 그 문화를 펼쳐보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축제가 아닐런지요.

2. 청소년이 점수(?)한 명동거리, 2001 명동청소년 거리축제

1) 정보! 명동에 가면 청소년축제가 있다.

이제 명동청소년거리축제를 소개할까 합니다. 명동에 가면 청소년축제가 릴레이처럼 있다는 소문은 들으셨는지요? 명동청소년거리축제는 명동거리에서 펼쳐지는 축제인 것임에 분명하겠구요. 명동청소년거리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2001년의 명동거리축제는

- ① 일 시 : 봄축제 2001년 5월 5일 ~ 6월 9일 / 가을축제 2001년 9월 9일 ~ 10월 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 ② 장 소 : 명동길(유네스코 회관 ~ 한빛은행 사거리)
- ③ 주 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④ 주 관 :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MIZY' / 서울YWCA 청소년문화공간 '마루'
- ⑤ 후 원 : 서울특별시

(2) 축제준비

① 축제주제선정

명동청소년거리축제의 주제는 <명동>과 <청소년> 그리고 명동의 청소년단체인 <미지와 마루>의 공통분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축제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거든요. 명동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가 축제를 준비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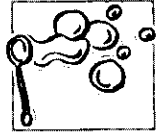
2000년의 축제는 특정한 주제를 먼저 선정하지 않고 명동의 거리 문화를 바꾸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2001년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실험을 해보고 명동과 청소년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주제를 6가지로 선택하였습니다.

퓨전 : 현대의 문화현상이라고 일컫는 몇 개의 단어 중에 퓨전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전혀 색다르고 참신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은 퓨전의 거리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얹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장난감 :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놀이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거의가 대형놀이이거나 돈을 주고 산 것이겠지요? 만들어진 것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주장하는 축제의 주제가 장난감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작게는 고무줄 놀이부터 제기 만들기, 비누방울, 새총 등은 어릴 적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었지요. 지금은 문방구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만들어 노는 장난감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당 : 명동은 정말 황당한 곳이지요.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각종 종교캠페인, 그리고 시위... 상품을 팔기위해 음악을 짹짹하게 틀어놓은 가게들이며 준비하게 늘어선 옷가게에서는 서로를 자기 것이 최고라며 선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명동에서는 일상이라서 따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축제는 바로 이러한 일상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을 벌여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짜가 : 명동만큼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공간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액면으로 보이는 가짜보다는 내실 없고 겉만 번지르한 가짜는 정말 문제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겉으로 보이는 가짜에 의미를 신지 말고 가짜지만 속이 짙은 당당한 가짜가 되어보면 어



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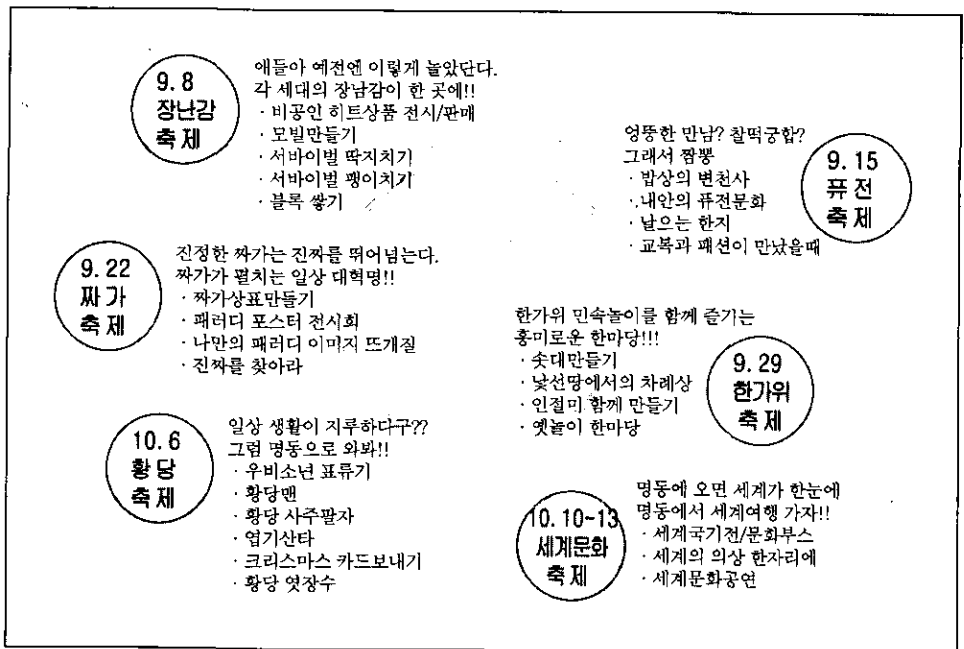
세계문화 : 명동을 다니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야 물론 관광을 온 것이겠지만 외국인들이 있는 거리의 모습은 이미 세계문화가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낮선축제) / 한가위 : 축제의 주제를 시기별로 맞추어서 봄 축제에서는 미지센티의 개관행사와 가을축제는 한가위 축제를 열었습니다.

명동거리축제의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6가지의 주제를 쌍(pair)으로 만들어서 동일한 주제로 봄과 가을에 두 번씩 열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명동과 청소년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의도였지요.

② 청소년축제기획단 구성

청소년 축제기획단은 9~24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청소년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에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가진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봄 축제 기획단이 6명, 가을축제 기획단이 7명입니다.



명동거리축제 주제별 안내(거리축제 웹사이트 중에서)

2)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1) 기획단

기획단은 공개모집으로 심사 후 결정됩니다. 자격기준은 특별히 없지만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활동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축제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발성과 적극성,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화를 내 손으로 생산하고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기획단이 되면 미지센터와 손잡고 일하는 것 뿐 아니라 네트워크 단체들을 직접 섭외해 보기도 하고, 많은 청소년동아리를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주제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지요.

실질적인 축제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리축제 청소년기획단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자원활동

기획단처럼 축제를 기획·진행하기가 버겁다면 자원활동을 통해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마당에서 놀이운영 및 전시부스 운영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3) 참여마당

참여마당은 축제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축제의 주제와 어울릴 만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상설참여마당에서는 캠페인과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및 청소년단체 등의 홍보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회원모집이나 활동소개를 할 수 없었다면 명동 청소년거리축제를 통해서 한껏 소리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테마전시마당

테마전시마당은 축제의 주제를 거리에서 펼쳐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거리문화와 축제의 주제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해지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집니다. 더구나 청소년기획단과 함께 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거리미술전, 참여게시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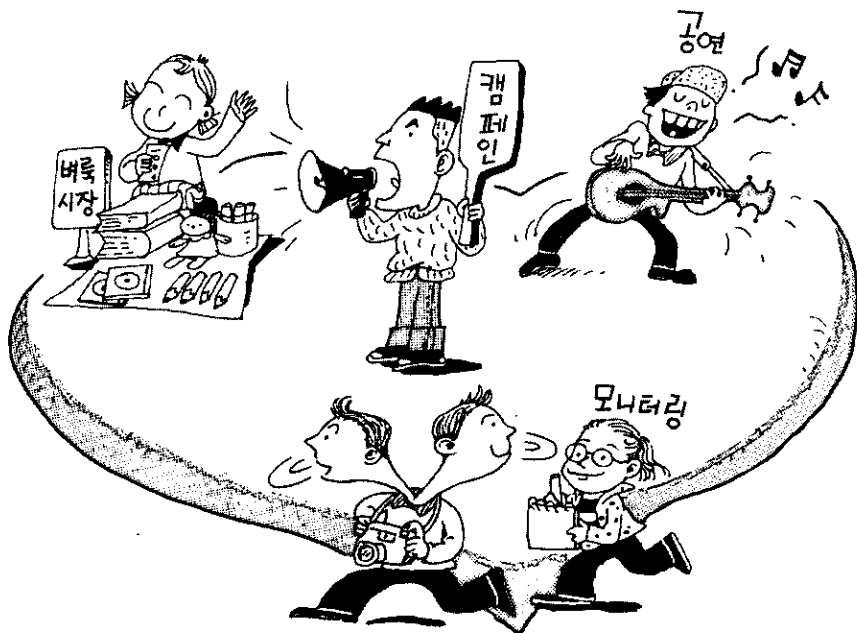


청소년 기획설치전 등은 거리축제를 보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마당입니다.

테마가 정해지면 이 테마에 적합한 전시기획을 조사하고, 명동거리와 청소년, 그리고 주제를 테마전시마당으로 소화해 냅니다.

(5) 벼룩마당

벼룩마당은 청소년만이 부스를 만들 수 있는 자그마한 창업행사입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나 청소년이 직접 만든 물품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벼룩마당의 참여원칙은 물건을 대량구매 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마당입니다.



(6) 캠페인

참여마당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소년거리 캠페인은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열어놓은 마당입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문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명동거리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슈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마당입니다.

(7) 공연마당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연마당의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무대의 사이즈는 작지만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마당은 관객들과의 호흡이 절로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가까워서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마당의 무대에 올라 올 수 있는 건 청소년으로 국한됩니다. 간혹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준비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무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공연마당에 단골로 출연해서 팬클럽이 조직된 청소년동아리도 있답니다. 매주 진행되는 축제이다 보니 단골손님(?)들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팬클럽도 만들어지더군요.

(8) 축제모니터링

축제를 잘 하고 있는지 기획단과 주최측은 궁금합니다. 축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관심이 있으면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콘텐츠를 다른 축제들과 비교·분석해 보고 자기 의견을 담아 보고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요? 2002년에도 명동에선 신나는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명동에서 '나'를 보여주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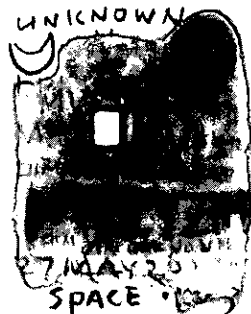


2001년 축제편성표를 참고하세요.

미지센터 : 02-755-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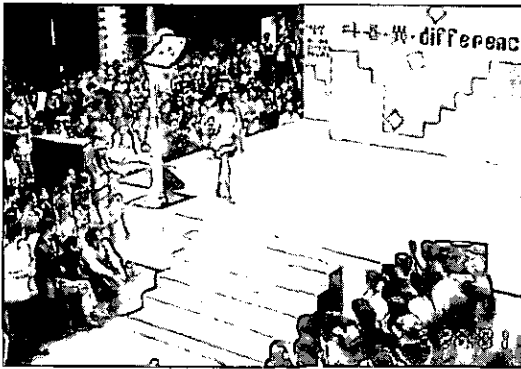
홈페이지 : www.mizy.net

e-mail : mizy@mizy.net



2001년 명동청소년거리축제 '축제편성표'

구 분	일 시	참 여 인 원
명동청소년 2001년 5월 5일~10월 13일 거리 축제 매주(토) 오후 2:00 ~ 6:00		206,961 명 - 일반참가 205,422 - 행사참가 1,129 - 자원활동자 410
1. 장난감축제	5월 5일	15,432 명 (일반15,320/행사83/자원29)
2. 퓨전축제	5월 12일	18,315 명 (일반18,310/행사167/자원25)
3. 세계문화 축제	5월 19일	21,302 명 (일반21,018/행사247/자원36)
4. 미지축제	5월 24일 ~ 26일	23,574 명 (일반23,300/행사244/자원30)
5. 황당축제	6월 2일	16,561명 (일반16,400/행사140/자원21)
6. 피자축제	6월 9일	20,125 명 (일반19,900/행사204/자원21)
7. 장난감축제	9월 8일	21,468 명 (일반21,350/행사102/자원16)
8. 퓨전축제	9월 15일	17,867 명 (일반17,730/행사122/자원15)
9. 피자축제	9월 22일	17,101 명 (일반16,920/행사165/자원16)
10. 한가위축제	9월 29일	13,881 명 (일반13,700/행사129/자원16)
11. 황당축제	10월 6일	28,612 명 (일반28,300/행사293/자원19)
12. 세계문화축제	10월 11일 ~ 13일	37,027명 (일반36,700/행사274/자원53)



미지축제 거리패션쇼



황당축제 “갑자기 나온 국민체조”
황당축제의 컨셉으로 국민체조음악을 틀고
명동거리의 시민들과 황당한 국민체조를 하는 모습



미지축제 공연마당 “다름 · 異 · dif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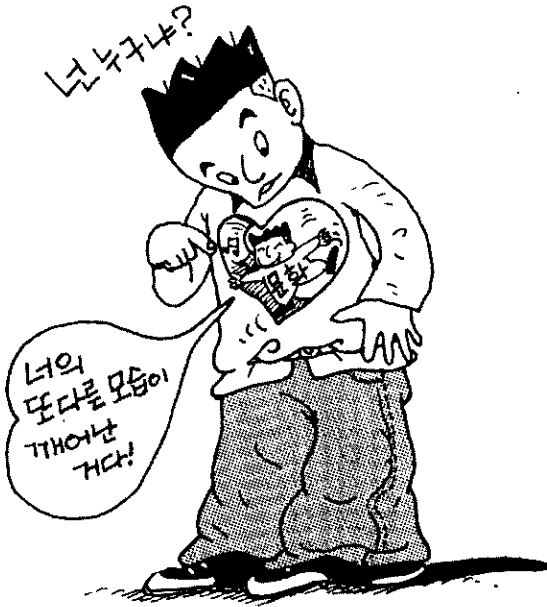
세계문화축제 공연마당 “세계와의 대화”
세계문화축제중 핸드벨연주



퓨전축제 테마전시마당 “사치행각”

팍도라의 상자





제4장 틈을 깨는 청소년활동: "대학을 이용하자!"

1. 대학 공간 활용하기

청소년 여러분, 혹시 '깨다'를 아십니까? 뭘 깨냐구요?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 관념, 숨막힌 현실, 답답한 일상을 깨기 위해 존재하는 '깨다'이니 그 말도 틀리진 않군요.

청소년 문화공간 '깨다'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대학들이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성공회대학교에서 야심차게 설립·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깨다'는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의 공감대를 대학생들과 함께 형성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성교육의 장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자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곳이지요.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상업적 대중문화의 그늘에서 보호하고, 작은 모임과 활동 등을 통해 의미를 찾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문화는 일상적인 일들과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를 찾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라고 빠질 수 없지요. 대학공간 역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대학의 구성원들(동아리, 교수, 기관 등)과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추가되는 청소년들의 문화형성이 아닌,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청소년 문화활동이라고 전 믿는답니다. 이런 믿음 위에 기초하여 '깨다'는 이러 저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회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대학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공감대와 활동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절실합니다.

아, 그리고 이 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적극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활동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해 대학과의 연계를

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겠지요. 나아가 대학을 이용한 여러분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대학공간을 이용한 ‘깨다’의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할까요?

2. 대학공간을 이용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공간 ‘깨다’는 성공회대학교란 대학 공간과 시설,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교수라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지역 청소년사업을 기획함으로써 하나의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학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을 중심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모두를 말하죠)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낭비를 막을 수 있지요. 또 지역이란 공동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진행으로 한 번의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차후 대학의 안정된 인적·공간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지요. 더욱이 이런 시도는 막대한 사회자원의 투입을 막는 사회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자생적 활동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지요.

어때요? 굉장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근 대학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나지 않나요?

자, 대학을 활용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우리 성공회대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했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소모임 중심으로”

‘깨다’가 1년여 동안 진행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지요.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현직 교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모임과 청소년 여러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구별된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들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은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의도(시설사용, 재정적 지원 등)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지역 각 대학들의 참여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런 대학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 적 : 소모임들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교사들의 실천적 교육현장으로서의 목적을 갖습니다. 실제 여러 이유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이나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 영 : 현재까지 '깨다'에서 열리고 있는 소모임은 대학공간과 자원을 이용한 모임으로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사용료도 없지요. 특히 현직교사가 모임을 이끌어 갈 경우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은 학교내의 자원들을 연계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예를 들면 영화제작, 댄스 동아리활동들이 대학 내 동아리연합회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깨다'는 이렇게 학교내의 공간과 자원들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는 청소년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답니다. 앞으로 각 대학들과 관련 학과(교육학, 청소년지도학), 동아리연합회 등의 제안과 일선 교사들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많은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엔 그 구체적인 실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1) 청소년영화 정기 상영회

제 기 : 2000년 10월,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토론할 장소가 없어 모임 자체가 해체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몇몇 열의있는 친구들의 제안으로 지금은 자신들의 영화를 성공회대학교 피자버그 홀에서 매월 상영해 오고 있습니다.

진 행 : 진행은 지역 청소년들이 각 학교의 영상반들에게 홍보하고, 연합회의 등을 통해 기획 · 홍보 · 발표 등을 맡고 있으며, '깨다'는 공간, 진행상의 조언, 재정적 · 기술적인 지원형태로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매월 정기적인 상영회를 갖고 있지만, 딱히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실정에 맞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이 모임은 현재 적게는 70~80여 명, 많게는 25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운영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임이 이렇게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청소년들의 문화적 변화 중 영상매체에 관한 관심은 대단히 높은 편인 건 알고 있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중 · 고등학교에 영상제작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들이 상영되는 횟수는 학교 축제와 일부 영상제 등을 제외하곤 거의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깨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영상제는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사회문제나 자신들의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의견을 집중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 기회의 장이 되겠지요.

각 지역별로 대학이나 공공기관들이 이런 청소년모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청소년들의 연합모임이 구성되도록 지원하고 활동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상문화 지원과 관련해 이야기한다면, 다양한 지역과 공간에서 상영회를 비롯한 영화정보 교환, 제작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특히 지역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영상제작반 연합모임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연합모임들과 정기 상영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이런 점들은 대학과 지역사회 기관도 적극 고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청소년 여러분이 인근 대학과 지역사회에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2) 토론활동모임

계기: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현직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며 주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재 우리 교육은 토론식 문화보다는 진도에 맞추어 나가는 강의식 형식이란 점에서 토론활동모임은 교육현장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체험학습입니다. 물론 이 모임은 교사와 청소년들이 함께 이끌어 다양한 주제와 행사로 진행되고 있지요.

진행: 토론모임은 월 1회 혹은 2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소는 대학공간과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제는 '나', '일본역사왜곡문제', '소풍' 등의 모임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자연체험형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이 모임은 현직교사가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모임보다 장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요. 청소년 여러분들 자신만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른들도 함께 참여해 나누고 있어 세대간의 의견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연극반 활동모임

계기: 이 모임은 청소년문화학교를 통하여 시작된 모임으로 그 동안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이 필요했던 현직교사가 연극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과 연극놀이를 통한 모임을 갖으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격주로 성공회대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모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연극에 관심이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교사의 제안으로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지요.

진행: 격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이 연극모임은 세 분의 교사와 10여명의 청소년들이 연극놀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이 모임은 현직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훌륭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끌어 가는 교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청소년들과 대학 연극 동아리의 연계(문화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도 가능하답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여름 문화학교 졸업생들과 영화학교 졸업생들의 연계활동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영상제작반 활동 모임

제 기 : 이 모임은 청소년 문화학교를 통해 영상제작에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학교 기자재의 미비로 인해 학교 안에서는 편집을 할 수 없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경우이지요.

운 영 : 학교내의 시설미비로 인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대학기자재를 활용해 극복하고, 나아가 영상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자원의 훌륭한 연계 프로그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소년들의 요구로 인해 학교 기자재를 대학생들을 통해 사용하고 배우는 기회들이 이미 있었고 대학생들 역시 이런 청소년들의 요구들을 적극 받아 들여 비정기적이지만 시설이용과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전부터 중·고등학교에 영상물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있으나, 기자재의 부족으로 영상물을 제작·상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학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5) 댄스팀 활동 모임

제 기 : 댄스팀 활동모임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깨다'에 방문하고 공간사용을 요구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쉬 믿지 못하겠지만, 댄스동아리는 학교 내에서 공식 동아리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학교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의 여러 곳에서도 공간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대학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요. 전, 여기서 다시 한번 청소년 여러분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을 위해 모임을 갖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아마 다른 모임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진 행 : '깨다'에서 하는 어떤 모임도 그러하듯 이 모임 역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모임을 갖으며, 대학은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댄스동아리 대학선배들과도 자연스런 친교의 기회도 갖게 되지요.

이렇게 해 봅시다 : 청소년 여러분이 각 지역의 가까운 대학들을 방문하고 대학 동아리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음... 뜻하지 않은 복덩어리가 덜컥 굴러올 겁니다.



“학교에 공간과 교수님, 동아리를 활용합니다”

1)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준비: 청소년여름문화학교는 ‘깨다’가 중점을 두고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학공간을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공간으로 여는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되었지요. 이 프로그램은 대학 동아리 연합회와 학과(NGO)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첫 문화학교는 대학공간의 개방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이라는 점을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교사들에게 홍보하였답니다. 특히 여름문화학교는 단지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청소년들이 직접 대학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연합회, 학회, 학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진행: 문화학교 준비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생 형, 언니들의 참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라 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답니다. 더욱이 대학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 동안 1주일 이상을 봉사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는 출발이었습니니다. 하지만 각 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들이 수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홍보, 진행 등을 맡아 나름대로 잘 운영한 경험적 사례가 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총 50여 명에 가까운 동아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나섰으며, 모든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어 참가한 청소년들과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답니다. 실제 행사이후의 자원봉사로 나섰던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 만큼이나 높았다는게 그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기도 했지요.

홍보: 이 프로그램을 위해 우린 지역학교 방문 홍보와 인터넷 홍보, 우편물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결과 실제 지역학교의 참여도는 낮았지만 처음 해보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로선 감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들의 운영 참여: 또한 학교 내의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통해 생명윤리, 민주시민이 되는 길, NGO특강 등을 실시했으며, 이런 전문인력의 참여는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려 드려야겠네요.

다양한 프로그램: 청소년여름문화학교에서는 수업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부대행사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쉽게 친해지고 이

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업후 각 공간마다 음악공연, 퀴즈대회, 물놀이, 수업연장, 영화토론 등의 주변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실시되었지요. 한마디로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문화학교는 각 지역 대학공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지역청소년들에게 개방하고 나눔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계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학교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공간을 방문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학공간을 중요한 정보와 나눔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대학이 지역 청소년들과 교사,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의 봉사역할 또한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지역 대학에 교육학과, 청소년관련학과(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문화학과 등)에 제안을 해 봅시다. 지역의 청소년단체나 교사, 학부모들이 연대해 대학의 교육학과,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대학생 선배 등을 통해 작은 문화학교 개설을 공동으로 제안해 봅시다. 혹은 각 지역 대학의 동아리연합회와 지역단체의 연합을 통해 “작은 문화학교” 개설을 제안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각 지역 대학의 동아리 연합회와 청소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21C 청소년 공동체 희망 www.heemang21.net) 문화학교를 개설해 봅시다. 지역의 단체들이 지역의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답니다. 이 제안들은 그리 쉬운 제안들이 아니지만, 실제로 대 학공간에서는 이러 저러한 형태로 지역 청소년들과 대학 학과가 서로 연계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만, 지역 청소년 단체와 학교, 동아리와 학회 등이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고 운영할 경우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보완함으로써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요.



2001년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사례

1. 운영기간 : 2001년 7월 23일(월) ~ 2001년 7월 28일(토) (6일간)
2. 대상 : 서울 남서부(구로·양천 일부 지역), 부천, 광명지역 중고등학생 200명
3. 진행장소 : 성공회대학교, 강화도 해양청소년수련관
4. 운영방식 : 1일 체험 학습과 1박2일의 캠프 병행
5. 프로그램 진행 인적자원 : 청소년문화공간 “깨다”, 성공회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소속동아리, 성공회대학교 신문 방송학과, 자원봉사자 등
6. 프로그램 및 담당자(또는 담당 동아리) : 영화교실(25명, 완전매진), 풍물교실(25명), 서예교실(10명, 서도반), 연극교실(25명, 꾀), 만화교실(25명, 김창남), 홈페이지제작교실(25명, 네오멀티), 청소년NGO교실(25명, 조호제), 수학교실(25명, 보는소리), 자원봉사교실(25명, 봉사센터)
7. 준비일정

일 시	내 용
5월 2주	기획단 구성, 일정표 정리, 강의안 초안 완료, 각 반 담당 및 진행요원 모집
5월 3주	홍보 시작, 장소 섭외, 강의 담당자 확정
5월 4주	강사 섭외 완료
5월 5주	필요 장비 파악, 장비 섭외 완료, 홈페이지 구축
6월 1주	강의안 완료, 자료집(내용) 완료, 각 반 담당 및 진행요원 모집 완료
6월 2주	등록 시작
6월 3주	담당 사전교육, 진행요원 사전교육, 세부 프로그램 기획 완료
6월 4주	자료집 편집 완료, 지역에 포스터로 홍보
7월 1주	행사 물품 구입
7월 2주	행사 리허설, 진행요원 교육
7월 3주	등록 마감, 마지막 점검

8. 프로그램 운영(예시)

시 간	월 (7.23)	화 (7.24)	수 (7.25)	목 (7.26)	금 (7.27)	토 (7.28)
10:00~11:00					제7강	갯벌탐사
11:00~12:00					졸업준비	정리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4:00	영화교실 등교	영화교실 등교	영화교실 등교	영화교실 등교	졸업식, 발표회	모임 정리
14:00~15:00	입학준비모임					
15:00~16:00	등록,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제 2강	특강 (생명윤리)	제 6강	캠프출발	
16:00~17:00	축하공연	제 3강	제 4강	반별모임		
17:00~18:00	제 1강	친구만들기 (반별 소모임)	제 5강	공통학습 (민주시민교육)	조별모임	
18:00~19:00	뒤풀이	뒤풀이	뒤풀이	뒤풀이	저녁식사	
19:00~20:00						
20:00~이후					캠프화이어 문화행사	

* 영화교실은 등교 후 공동프로그램을 제외한 별도의 시간 적용



2) 청소년 영상축제

제 기 : 청소년 영상축제는 행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지역문화공간인 대학공간에서의 영상활동들을 격려하고 축제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문화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을 성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린 제1회 성공회대학교 청소년 영상제 “우리들의 영화! 볼 것 없는 세상에 시비를 건다!”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 : 운영은 대학자원인 교수님들과 영상동아리(완전매진)가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축제가 이루어 졌지요. 기간은 일주일 동안 출품한 작품들이 상영되었는데 출품자 외에 많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이 흠이었답니다.

대안 : 앞으로 영상제 기간을 매주 토요일로 4주에서 5주 정도로 진행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의미를 많이 담아내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지역 내 청소년 영상모임을 일단 먼저 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영회를 갖는 것으로 출발해 봅시다. 여기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은 청소년단체에 부탁해 봅시다. 이후에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영상축제를 개최하는 것(비경쟁)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이고 나누는 역할들을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 한마당

제 기 :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로 이루어진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 평화, 인권, 통일, 제도개선, 의식개선 등의 주제로 수업을 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참여체험에 대한 인식들이 바르게 되어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운영 : 운영은 일선교사와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깨다’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도 올해부터 받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과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발표 한마당은 일선교사의 제안으로 올해 두 번째 열리게 되었습니다.

발표 한마당은 청소년들과 일선교사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사회참여는 봉사로부터 제도개선, 의식개선의 분야까지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은 NGO활동가라는 이름을 달아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지역사회의 각 대학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격려와 나눔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학교(안)

제 기 : 사회참여 체험학교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리는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 한마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발표 한마당 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공간에서 청소년들의 바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발표 한마당 행사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운 영 : 사회참여 체험학교는 성공회대학에서 열리는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 한마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NGO활동에 대한 이론적 수업과 현장수업을 통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활동 중인 여러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방문하고 자신들의 학교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며 논의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영성체험도 함께 겸하는 3박 4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 봅시다 : 각 대학이나 청소년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발표 한마당은 대부분 학교 교과수업이나 동아리의 발표장으로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체험학교는 사회참여뿐 아니라, 봉사학교, 역사체험학교 등 다양한 주제로 방학동안 새로운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진 대학의 여러 자원들, 예를 들면, 공간과 교수, 대학선배, 동아리,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청소년 문화축제의 지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공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통해 '깨다'가 지난 1년여 동안 준비하고 실행해 온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문화는 많은 부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선택의 폭들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한 일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서야 할 벽들은 존재하지요. 그건 단순히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의 문제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랍





니다. 바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청소년 교육정책의 다양성 부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희망보다는 소수의 분야에서만이 인정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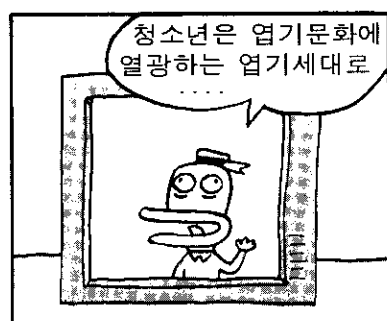
이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연계지어 자연스러운 활동들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되어집니다. 일상적인 삶 자체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가치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공간을 이용한 청소년문화사업과 활동들은 소개한 것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 학교기관의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의 요구입니다. 스스로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담론



꼬마시민운동 무럭무럭 영근다

“사용한 뒤에 변기 물을 꼭 내리세요, 청소할 땐 친구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물기를 닦아주세요.”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삼정중학교 윤혜은(尹惠銀, 15.3년)양 등 화장실 악취제거팀 4명은 이런 애교 섞인 문구가 적힌 ‘우리학교 화장실 사용 10대 수칙’을 학교전물안 20여개 화장실 문마다 붙였다.

이들은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 청소년 문화공간 ‘깨다’가 개최한 전국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 한마당에 참가한 팀의 하나로 발표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긴 것.

올해로 두번째인 이번 한마당은 지난 3일 행사장인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피자버그홀에 전국 중·고교 41개팀, 2백여명의 학생이 모여 환경, 인권, 제도개선, 의식개혁, 학술 등 5개 부문별로 각자의 사회참여 경험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참여공간을 발굴해 앞으로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꼬마시민운동이 생겨나는 계기로 삼자는 게 행사취지다.

삼정중 한선희(韓善熙, 15.3년)양은尹양과 함께 한마당 환경부문에 참가, “화장실 악취가 교실에까지 미쳐 수업 환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아 해결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화장실 악취퇴치 행동에 나선 이들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화장실마다 고장난 환풍기를 수리했고 깨끗한 화장실 사용을 위한 교내캠페인으로 사용수칙이 담긴 전단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韓양과尹양은 “처음엔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화장실에서 맨날 사나는 핀잔도 들었다”며 “그러나 우리들 덕분에 화장실 악취가 줄어들자 핀잔이 격려로 변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소년사회참여한마당의 의식개혁부문에 참여한 경기도 안양고 국경훈(16.1년)군은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 장착문제를 지적하고 어린이전용벨트 장착 등 개선의견을 내놨다.

·菊군은 “서울·인천지역 통학버스 1천7백75대 중 88%인 1천5백62대에 어린이 안전벨트가 장착되지 않았다”며 “유치원생 전용 통학버스조차 어른용 안전벨트가 장착돼 사고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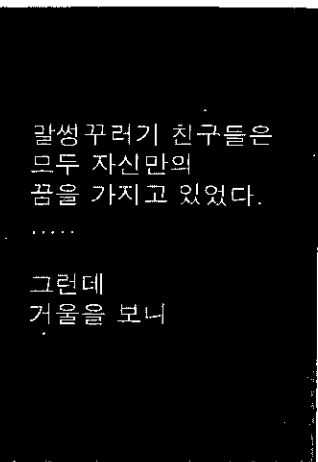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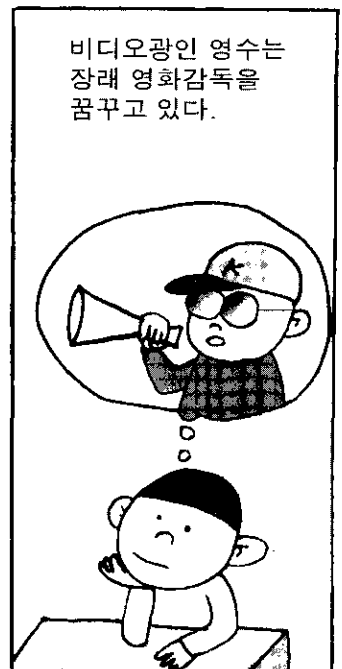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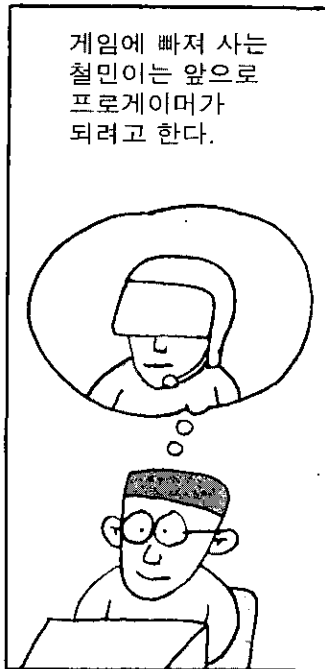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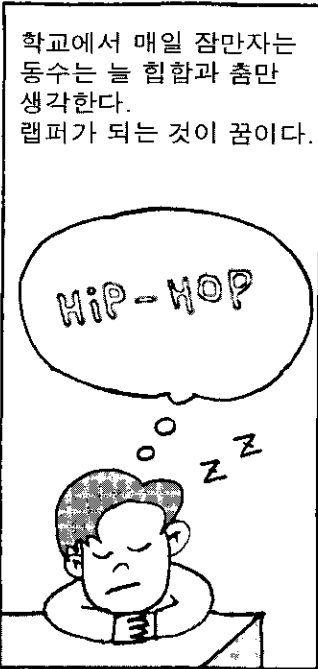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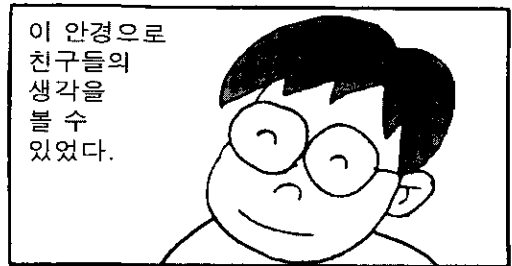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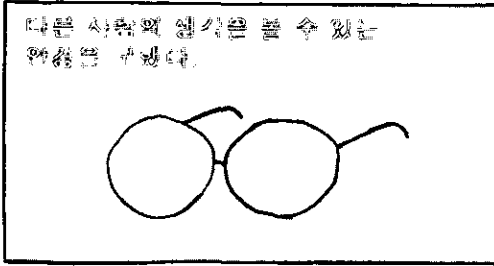
또 이번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은 행사를 지켜본 성공회대 조효제 NGO학과장 등 선배 시민운동가들에게 “앞으로 시민단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라고 질문하는 당돌함을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문화공간 ‘깨다’ 대표 김병내(金炳乃, 34)신부는 “학생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 같다”며 “학생들의 사회참여체험이 자신과 이웃 모두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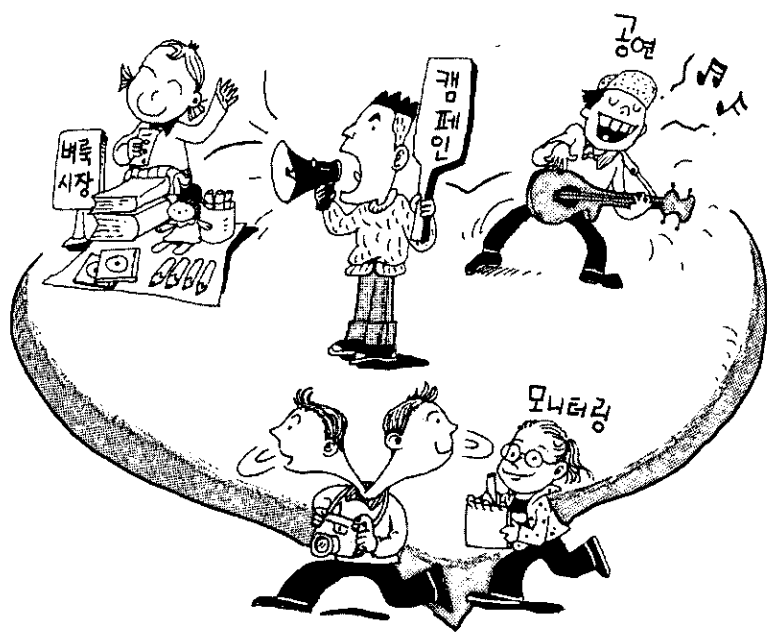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공간 깨다(<http://blue.skhu.ac.kr/~kkeda>)의 연락처는 02-2610-4132.

중앙일보 2001. 11. 2

안경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제5장 학교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청소년 활동

1. 학교에서의 자치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해 갈수록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즉,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 여러분은 지금은 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자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관습의 틀에 맞추어 생활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으로 성장해 갈수록 학교 안팎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자율과 자치가 인정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년인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러분들에게 자율과 자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풀어보는 경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해 낸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기에 학교 안팎에서 해 보는 다양한 자치활동 경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계획과 방식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해내는 경험이야말로 여러분이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치활동은 여러분을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우리의 학교나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바라보고만 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는지, 자신들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실 어른들을 설득하고 협력과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자신들의 바램과 소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멋지게 하는 방법

자율과 자치는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가까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이나 학교야말로 자치활동이 가장 필요한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급이나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풀어갈 수 있어야 하며, 꼭 하고싶어 하는 일이나 건의 사항들을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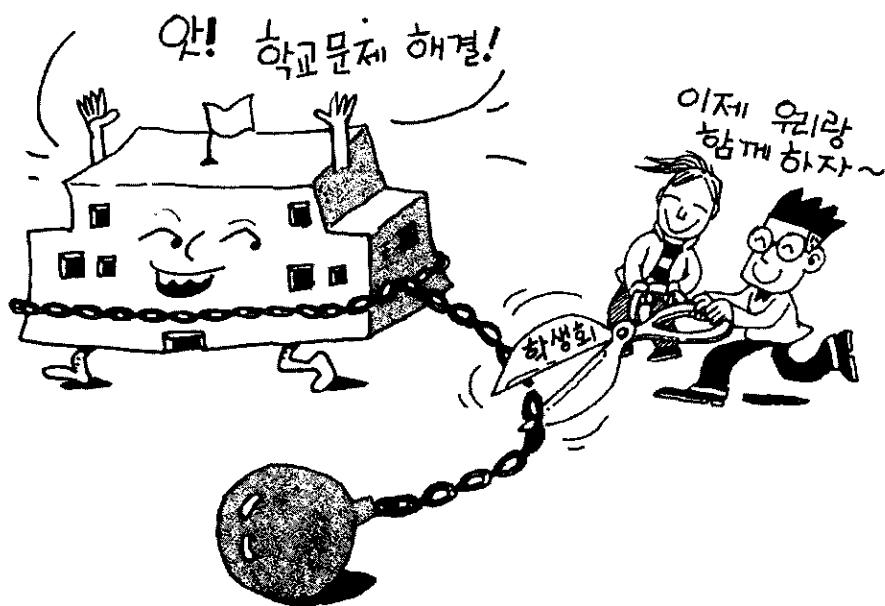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의 많은 학교들은 생활 속에서 폭넓은 자율과 자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학칙이나 교칙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요즘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통제할 대상으로만 보는 선생님이 계시고 규제와 통제 위주의 낡은 학칙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치 능력이나 책임 의식을 충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 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쫓기듯이 생활해야 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자치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대학입시나 시험공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치활동은 매우 사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자치활동은 유명무실해지기 쉽습니다. 학급회의 시간을 자습이나 하면서 보내거나, 학생회가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율과 자유를 누리며 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

이러는 노력없이 학교에서의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학교를 입시학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율과 자치권을 누리면서 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1) 학교내 자치활동의 방향 설정부터 바르게 해야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 생활상의 문제 등을 자신들의 힘으로, 공동체적인 원리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실현시키고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회는 자신들의 문제나 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나 토론 등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활동이란 자기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뿐 아니라 학교를 더욱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갈 책임을 함께 지고 그를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학생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는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겠지요. 학생회는 다른 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시민 사회단체와의 교류, 다른 나라 학교 학생들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2)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학생회장으로 세워야

학생 자치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장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학생회 활동이 실패하거나 흐지부지 하게 되는 많은 학교들은 올바른 선거를 통해 진정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장의 자질은 학생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공로상이나 가산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학생회장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친구들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야 합니다. 회장에 출마할 사람들은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 선거 방식을 좀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바꾸자

1. 출마 및 운동 방식을 공동후보군(런닝메이트)제로...

- 학생회장 선거는 당연히 직선제로 하되,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3~4명)들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여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후보군제는 선후배간의 만남과 교류를 긴밀하게 하고, 선거운동 하는 데 다소 미숙하고 부자연스러운 학생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선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런닝메이트는 입후보자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짝을 지을 수 있게 하되, 마음에 맞는 후보자들이 만나 서로의 장점들을 살려 공동후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선거 공약은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활력소

- 학생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일 첫 출발점은 바로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 일입니다.
-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제시되고 홍보될 때에 비로소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요구와 희망을 담은 알찬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약은 작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학교를 좀더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멋진 선거 공약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는 필수

-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널리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등의 질문을 하여 가장 많은 사람의 바램을 공약으로 만듭니다.

※ 학생회장이 중심이 되어 공약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학생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구심으로서 힘을 갖게 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한 공약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고, 실현시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학생회 운영 계획과 사업계획을 출마할 때 미리 내도록...

- 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약으로 다듬어내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과 향후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직 미숙하여 활동계획을 충실히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공동후보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약과 사업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학교의 특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선거를 축제로...

- 각 학급을 투표구로 나누어 일시적으로 투표하던 방식을 바꾸어, 일정한 시간 안에 특별히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생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좀더 높이고, 책임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투표소 설치의 지역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들이 하루 동안 선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투표함과 기표소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계획은 대략 1교시에 운동장 유세나 방송 유세로 마지막 선거유세를 하고, 2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쉬는 시간에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3) 당선된 뒤에는 선거공약실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참신한 공약을 내세우고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람과 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진영은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었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회 지도교사 등 여러 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 학부모 회장과 학부모회 간부님들, 교감·교장 선생님, 생활지도부 선생님 등을 만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쭙보아야 합니다.

❖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반대자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 공약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어 그들의 염려나 우려,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대의원과 학급회의 등을 통해 그런 걱정을 씻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두발자유화를 하려거든 생활지도부의 보수적인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4)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이 활성화하고 학생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바램을 실현시키게 되는 만큼, 학생들은 학교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인 태도와 바른 행동을 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회 간부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 대의위원회나 학급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거나 캠페인이나 유인물 등을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방송과 신문이나 대자보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은 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며, 반대자들을 함께 설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5) 학급회 활성화 없이 학생회 활성화는 불가능해

40명 안팎의 학급원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학급이라는 공간에는 함께 의논해서 풀어가거나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급회는 바로 학급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학급을 민주적으로 꾸러가는 과정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학급회를 통해 전달되어 토의되거나 실천되어야 하며, 학급회에서 제안된 중요한 의제나 건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되고 학교 당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교의 학생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반의 학급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은 학급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학생회 차원의 활동이나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자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히 학생회비를 걷기도 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지만 모든 학교의 예산 가운데는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은 다양하고 알찬 자치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회 예산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다음에 예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겠지요. 요즘에는 타당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 예산 지원에 인색할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7)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회와 연계해 활동의 폭을 넓히자

학생회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 학생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이 연합해 모이면 각 학교의 학생회 활동 사례를 나누고, 좋은 강사를 모셔 강의를 듣는 등 학생회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회 간부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e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 안에 교류협력을 주로 관장할 부서(대외협력부 등)를 만들어 적극적인 교류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 ❖ 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의 대표자인 학생회장들이 '전국적인 고등학교학생회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이 단체의 총회장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수시로 만나 전국적인 학생·청소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볼 만한 사업들

학생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매력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 하면서 학생회가 감당할 만한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없이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다음은 학생회가 주도하여 해 볼 만한 사업들의 예시이다.

1.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학생회 주최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반영한다.
-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 고민, 폭력 피해 등을 조사한다.
- 학생회 명의로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개봉해 건의한다.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배들이 실시한다.

- 3월초 신입생 입학 직후에 학생회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3학년 중에서 학급별로 3~4명씩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 해당 1학년 반에 들어가 학생회 활동, 학교의 전통 등을 소개하고,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3학년 선배들은 학교의 전통이나 학생회 활동을 소개하고, 2학년 선배들은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다.
- 학교에서는 학생회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3월 초의 학급활동(HR)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3. 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학생회'를 운영한다.

-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학생회의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한다.
- 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회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홈페이지의 운영은 웹페이지 제작을 잘 하는 학생을 발굴해서 운영하게 한다.

4. (가칭) '좋은 우리학교 만들기' 캠페인 실천 운동을 벌인다.

-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실현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활동 외에 학생회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바른 수업태도 갖기, 민주적인 생활 태도 갖기, 왕따나 폭력 없애기, 흡연이나 음주 안 하기, 화장실 깨끗이 쓰기 등을 내걸고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학급별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 홍보 방법은 학생회 명의로 플래카드, 학교 신문, 학교 방송, 화장실의 명상카드, 별도의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5. '좋은 학교 전통 세우기' 운동을 벌인다.

- 학교에서 잘 안 지켜지는 일, 학생들이 꼭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 등을 학교의 전통으로 세워 함께 지켜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 '책상이나 화장실에 낙서가 없는 학교', '입학생은 누구나 좋은 책 200권 읽고 졸업하는 학교', '학교내 폭력이 없는 학교',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학교' 등 참신한 전통을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각종 학교 교육 체험 수기를 공모하고 교지를 만든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독특한 교육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생한 감동이나, 개선점을 써내도록 공모하는 것이다.
- 수련회, 테마소풍, 진로체험의 날, 학교축제 등 학교의 독특한 교육활동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 좋은 작품들은 교지 등에 실도록 한다.
- 학생들이 써 낸 감동이나 개선점은 다음 해 행사나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7.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특별 사업을 벌인다.

- 학생회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하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 아이템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농촌 봉사활동, 무의탁 노인이나 사회시설 봉사활동 등 봉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학생회 이름을 걸고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다.

8. 즐거운 학교, 건강한 학생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어 간다.

- 학생회가 주최하여 간단한 학급대항 행사나 학교 축제, 각종 문화 체육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상품 등은 학교 당국에서 학생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한다.
- 학급 대항 발야구나 피구, 길거리 농구 대회, 토요일 동아리 발표 마당(동아리 공연이나 춤 마당), 학교 축제, 토요 동아리 발표마당 등



「학생회 자치 능력 향상 프로그램」(예시)

지금 학교에서는 매 학년 초에 학생회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학생회장단이 선출된다. 그러나 선출된 학생회장단들이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학생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들도 학생 자치활동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학생회의 대표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회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성향도 학교마다 다양해서 일관된 학생회 지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회장단들에게 학생회가 중심이 되는 학교의 자치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다양한 활동 사례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그래서 더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활동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청 단위의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최

지역학생회연합회가 꾸려져 있다면, 그런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므로 학생회가 비교적 잘 운영되는 학교들이 앞장서는 방법이나,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하는 방법, 교육청 차원에서 기획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규모의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수련을 진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하는 것일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학교 학생회장단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을 모아 학생회 운영과 자치활동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관내의 많은 학교와 학생회에서 호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학생회장단들이 학생회 대표로서의 분명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내용, 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법은 물론 학생들의 바람과 요구를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작은 지도자로서 원대한 꿈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잘 해 낸 다른 학교들의 학생회 운영 사례를 함께 나누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예시

- 특 강 : '학생 자치활동의 의의와 임원들의 책임',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 특 강 :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리더십',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
- 교 육 : 학생회 연강 활동 계획 이렇게 세워보자, 학급활동(HR)과 대의원회의 연계 운영은 이렇게
- 교 육 : 학생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잘 하려면 - 회의 진행 방법, 인건 발굴과 처리 방법
- 사 례 : 학생회가 중심이 된 축제 꾸리기 사례, 두발 복장 자율화 어떻게 할까?
- 사 례 : 학생회장 선거 사례, 학생회 집행부서와 운영위원회 꾸리는 법

3. 강사진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진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다년간 학생회를 잘 지도해 왔던 교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전직 학생회장들, 존경받는 명사나 지역사회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청소년 자치활동 전문가,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등이 초빙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상되는 효과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회 정부회장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길러주어 학생회장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의 학생회간에 활동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크게 활성화하게 되고, 상호 교류와 연대를 촉진시켜 건전한 학생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면 불량 동아리나 불온한 단체인 것으로 생각하여 의심하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특별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교 내 동아리들의 발표 마당을 개최하는 등 동아리 육성을 위한 노력이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동아리란? 왜 동아리 활동인가?

동아리란 취미나 특기가 비슷한 사람, 장래의 꿈과 희망이 비슷한 사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 안의 방송반이나 신문반, 풍물반, 문예반 등이 대표적인 동아리이며, 자동차·자전거·탁구·볼링·댄스 등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어떤 주제로든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주도하여 구성되었다가 학년말에 흩어지는 특활반과 같이 타율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동아리는 앞 기수 선배들이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음 기수 후배들을 모집하며,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정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계획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동아리원들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보살피며, 후배는 선배로부터 배우고 존중하는 전통을 가집니다. 동아리원들은 선배 기수로부터 오랜 동안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고유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선 기수보다 더 알차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공동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활동해 본 경험,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집단사고의 경험, 서로의 견해 차이를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좁히고 함께 활동해 본 경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해 본 경험은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되어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학교 앞에서 동아리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까?

(1) 어떤 동아리를 구성하면 좋을까?

책읽기(독서), 봉사 활동, 연극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풍물이나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작활동, 노래부르기, 댄스,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 등산, 자전거 타기, 롤러 블레이드 타기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활동들은 동아리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아리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한 학년에 5~8명 정도 모여 전체 15~24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적당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3) 간단한 동아리 활동 계획(초안)을 만들고 시작해야

동아리 구성 준비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엔 정기적인 모임 주기, 동아리 단합 대회, 봉사활동, 특별한 이벤트, 발표나 전시 계획, 동아리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시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아리 구성을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 초안은 동아리원이 다 모집된 뒤에 창립 총회를 할 때 함께 의논하여 변경시키거나 더욱 알차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4) 좋은 선생님을 지도 교사로 모셔야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동아리와 관련이 깊은 과목의 선생님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만한 분을 동아리 지도교사로 모시도록 합니다. 선생님께 왜 동아리를 창립하려 하는지 진심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교사는 창립 과정에 많은 도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학교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5) 사람을 찾아라 : 관심이 비슷하거나 뜻 맞는 사람 찾기

동아리 핵심 멤버 찾기 : 동아리를 처음 구성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나 평소에 눈여겨 두었던 후배 가운데 한 두명을 모아 그들과 함께 사람 모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아리원 모집 포스터 그리기 : 사람을 찾는 포스터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색깔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꾸미도록 합니다.

모집 포스터 붙이기: 모집 포스터는 학교 곳곳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학급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도 적극 이용합시다.

학급을 돌며 홍보하기 :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에 학급을 돌면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정성껏 환영하고, 모집 작업을 돕게 합니다.

- ❖ 지원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집과 홍보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 ❖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지원자의 열성과 참여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 적절한 인원을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적을 때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6) 창립 총회 겸 단합대회 개최하기

동아리원 모집이 끝나면 멋진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 총회는 학교(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학교 인근의 떡볶이 집도 좋고, 가까운 곳에 청소년수련관이나 관련 시설 안의 적당한 공간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창립총회에 필요한 경비는 되도록 동아리 모집을 주도한 선배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 총회에서부터 선배들이 주도하여 스스로 꾸며낸 동아리가 더욱 힘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 ❖ 창립 총회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지요?
핵심 창립 멤버 인사 → 창립 준비 경과 보고 → 창립 회원 자기 소개 및 주소록 교환 → 임원 선출(회장, 부회장, 총무 등) → 사업 계획(초안) 검토 및 좋은 의견 보태기 → 회원이 함께 지킬 활동 규칙 정하기 → 앞으로의 일정 계획 세우기 → 뒤풀이
- ❖ 창립총회를 한 뒤에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 자원을 최대한 받아 사용하도록 합시다. 동아리 지도교사나 특별활동부장 선생님께 활동(사업)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 - 클럽활동과 연계되어 활동

동아리를 창립한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아리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으로 대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 친근하게 만나다 보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아리원들끼리 친해지기만 하면, 좀더 신나는 활동거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거나 소박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함께 할 수도 있겠지요?

❖ 동아리 활동은 자연스럽게 학교의 클럽활동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클럽활동 시간에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클럽활동이 없는 날에는 동아리원들이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모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클럽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아리 활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려면

동아리 창립 초기에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지만, 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좀더 폭넓은 만남과 교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동아리 수련회나 단합대회 개최하기

동아리원들이 당일로 또는 1박 2일로 적당한 곳으로 수련회(야유회,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려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필요한 준비물을 나누어 맡으며 지도 교사께 특별히 부탁하여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2) 다른 학교 동아리와 만나고 교류하기

가까이 있는 다른 학교의 비슷한 동아리들과 교류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와 같은 취지로 활동 중인 다른 학교의 동아리원들과 만나며 경험을 나누는 일은 동아리 활동을 더욱 신나게 해줄 것입니다. 한 번 짝 특활이 있는 날 대학생 동아리를 찾아가 탐방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3) 동아리 전시회나 발표회 개최하기

학교 축제나 지역 축제 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동아리의 작품이나 활동상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꼭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동아리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4)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또는 사이버 동호회에서 정보 자료 얻기

인터넷에서 동아리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으면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속에서 동아리와 관련이 있는 동호인 모임을 찾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들을 잘만 이용한다면 동아리 활동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문학 동아리의 경우 인터넷 서점이나 독서 클럽, 문인관련 사이트 등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문 동아리의 경우 신문사나 기자협회, 언론노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5) 외국 학교에 있는 비슷한 청소년 동아리들과 교류하기

수년 동안 활동하여 전통이 세워진 동아리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생들과 동아리 차원의 교류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와 통신이 발달한 요즘에는 특히 외국 학교의 동아리들과 메일이나 영상을 주고 받거나, 활동 프로그램 내용들을 나눌 수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서로 교환 방문하는 행사를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 동아리들과의 교류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 주고 좀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학교의 같은 동아리가 함께 하는 [동아리의 날] 행사를 열자

-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 동아리 만남과 교류의 장

학교에는 방송반, 신문반, 문예반, 연극반, 독서반, 합창반, 관현악반, 댄스반 등 상설 동아리(또는 잘 운영되는 클럽 활동반)들이 있으며, 이들 동아리들은 그나마 미미하게나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가꾸는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동아리들이 다른 학교 유사 동아리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 사례를 공유하거나 좀더 발전적인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동아리의 날]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관내 다른 학교의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좀더 발전적인 활동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직 동아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그런 동아리에 관심이 있거나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동아리의 날]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활동에 필요한 영감이나 아이디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프로그램 운영

우선 매주 특정 요일(예컨대 목요일이나 토요일)을 [동아리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특정한 동아리 구성원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매월 목요일을 동아리의 날로 지정하고, 3월 3째 주 목요일은 [방송 동아리의 날], 4째주는 [신문 동아리의 날], 5월 첫째 주는 [독서 동아리의 날], 5월 둘째주는 [연극동아리의 날] 등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할 수 있다면 이 날은 해당 동아리의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가 아닌 청소년수련관으로 등교하여 오후 시간까지 동아리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2. 추진체의 구성

[동아리의 날] 행사를 좀더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교별 해당 동아리 대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 가운데 희망자로 [○○동아리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준비위원회는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사 계획을 확정하고 학교별로 널리 홍보하여 참여를 조직하게 된다.

3. 행사 내용

행사 내용으로는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줄 특별한 교육, 관련된 문화예술인이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의미 있는 이벤트, 동아리 활동 체험담 및 사례 발표, 동아리 선배로부터 듣는 경험담 등의 내용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각 동아리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우 특색 있고 개성 있게 짜도록 한다. 문예반이나 문학동아리의 날이라면 '독후감 발표회', '시 낭송하기', '작가와의 대화', '시화 전시회', '문학 동아리 활동 사례' '시·소설 창작법', '문학을 전공한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꾸며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동아리의 날]이라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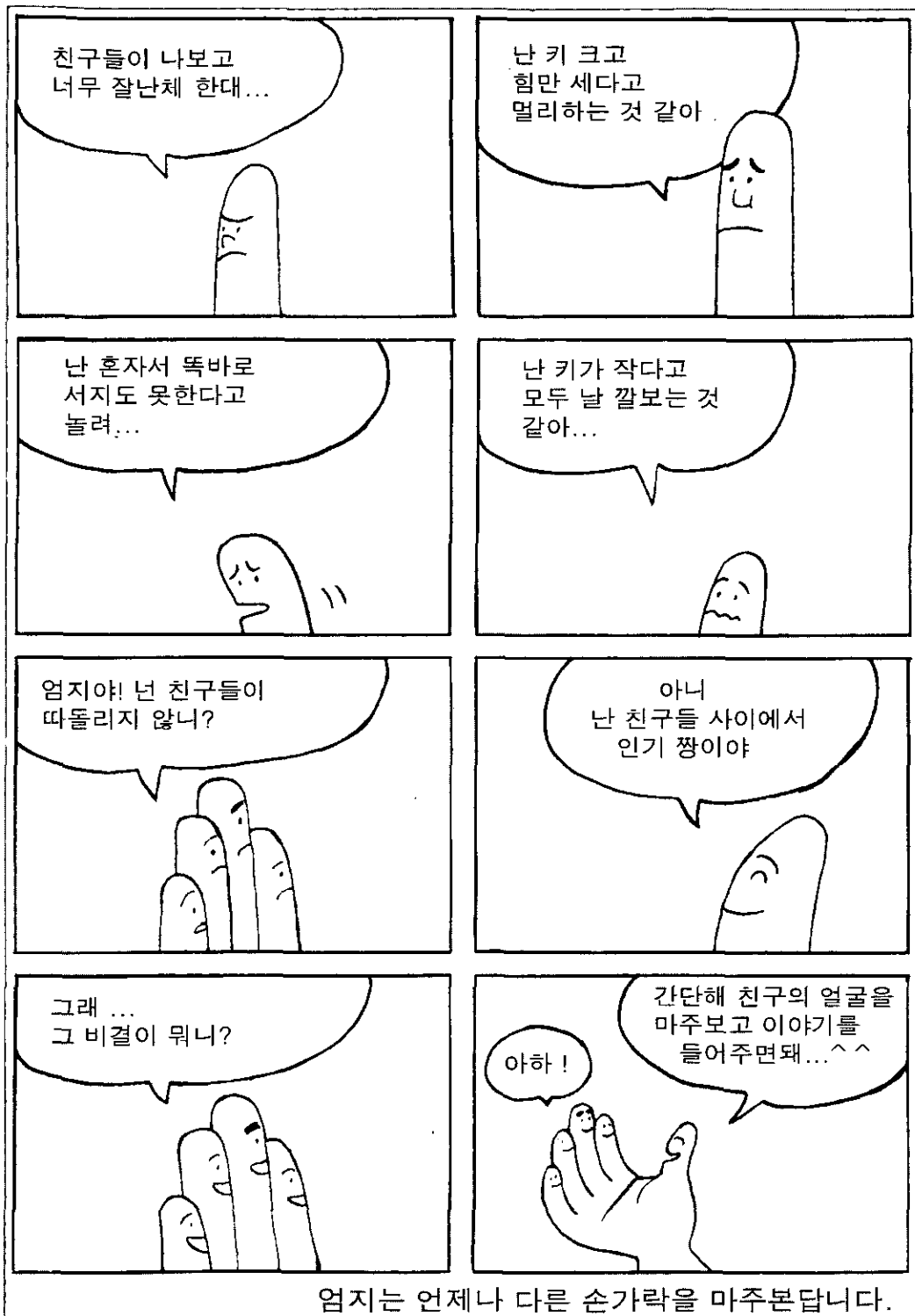
■ 프로그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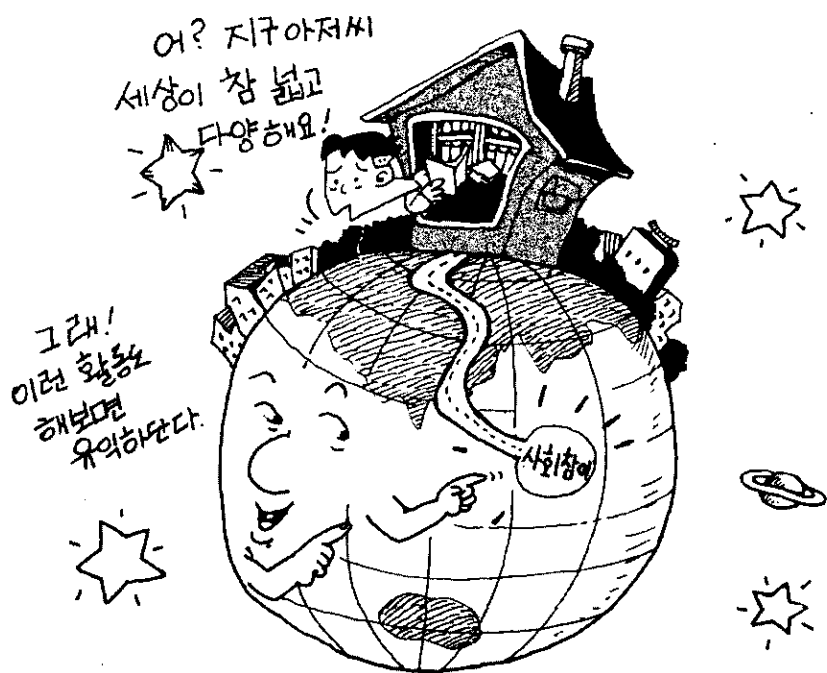
- 교육 : 학교 방송의 의미와 방송반원들의 역할과 책임
- 초청 강연 : '유명 방송인(PD, 아나운서 등)에게 듣는 방송이야기' '정보 기술의 발달과 방송의 미래' 등
- 방송반 운영 사례 : [학교방송국] 사례,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방송제 사례
- 방송 기술 배우기 : 음악 방송을 잘하는 법, 비디오 촬영 및 편집 방법
- 방송국 탐방 활동 : ○○ 학교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등
- 방송 동아리 친교 한마당 : 방송국 공연, ○○ 학교 방송제 작품 시청, 장기자랑, 친교

[동아리의 날] 프로그램은 매 주 한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동아리별로 위에서 언급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수련관과의 조율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행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리의 날]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자연스럽게 관내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학생과 지도교사들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만남과 교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동아리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고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참여를 부추기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동아리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학교 동아리들 간에 교류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동아리 연합'으로 발전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지역 사회 청소년 문화가 꽃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6장 희망의 미래를 일구는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1. 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인가?

21세기, 우리는 21세기가 개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희망의 세기가 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력과 불의가 힘을 못쓰는 사회, 억압과 차별·독점과 가난이 없이 함께 나누는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가정과 사회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조차 갈곳 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힘겹게 노력해 보지만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사랑과 공존보다는 힘과 자본(돈)의 논리가 국가 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폭력·차별·마약 등 20세기의 못된 유산들이 여전히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소수 강대국의 횡포와 국가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와 인류 위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21세기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를 만들어 가야 할 주역은 바로 지금의 중고생,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어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꿈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 지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보내는 일상 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중고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공부만을 제일로 여기며 시험 부담에 가위 눌려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희망의 21세기를 이끌 원대한 꿈을 키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의 교실과 자기 방, 책가방과 책상 위에 가두어져 있는 시야를 좀더 넓히고, 우리 사회와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고통에 따스한 눈길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이나 욕망만을 추구하거나, 요란 스텐 쇼 프로그램, 게임과 오락이 주는 즐거움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넘어 세계를 보고 생각하는 눈과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은 좀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갖고,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

☺ 다음은 학교 안의 학급회나 학생회, 동아리 차원에서 또는 학교 밖 동아리나 단체 차원에서 함께 해볼 만 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함께 실천해봅시다.

1) 우리는 사회 복지사 - 사랑과 나눔을 배우는 봉사활동

-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 일정 수의 청소년들이 복지 지원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복지행정관청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특별한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하며 매주 또는 격주로 찾아가 보는 활동

2) 자연과 환경보호, 청소년에게 맡겨 주세요

-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 [공해 물질 배출업소 감시단], [푸름이 나무심기 봉사단], [자원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모임]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함



-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교, 관공서 등은 청소년 동아리원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 학생수가 너무 많아요 -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 정부나 교육기관,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교를 좀더 가고 싶고 공부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청소년들의 운동이며, 교육 환경이나 여건 문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신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며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교복값이 너무 비싸요” 라면서 교복시장의 모순을 고발하고 공동구매를 권장하는 캠페인, “우리도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며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운동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모든 소년 동아리 - 소년 유해 환경 정화 운동

- 자신들의 생활권 안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문화와 정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유해 업소를 찾아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는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흥업소, 술이나 담배 파는 가게, 학교 인근의 향락업소 등이 있으면 고발하고,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 보내기
- 행정관청이나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보호해야 함

5) 청소년 NGO의 힘 - 지역 사회의 시민들 함께 참여하기

-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단체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시민단체의 종류와 활동 알기, 가장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 가입하기,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조사하기,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회과 탐구 및 활동 프로젝트로 제시하여 진행하되, 혼자서보다는 몇 명이 팀이 되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꾸기 운동

-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유입, 상업주의적인 대중 문화의 횡행으로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우리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서는 운동으로, 국수주의적인 문화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외래 문화와 조화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의 운동
-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캠페인', '우리 전통 문화 바로 알기 탐구 활동',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우리문화 탐구', '무엇이 우리말·글을 더럽히는가' 등의 다양한 테마를 내걸고 학생회 차원에서 또는 관심 있는 동아리 단위로 벌일 수 있음



7)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 - 청소년들이 가꾸는 사이버 지방자치

- 지역사회의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동아리, 학생회장단 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시·군·구청이나 의회 등에 요구하여 청소년이 가꾸는 사이버 지방자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 '내가 시장(군수)이라면', '이 곳을 살펴주세요', '시장(군수, 구청장)님께 보내는 신문고', '세상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메뉴를 개설, 청소년들이 수시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함

- 지방 자치단체나 의회에서는 운동을 추진하는 동아리들이 시·군·구청이나 의회를 견학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참신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엄마 아빠 걱ichts를 버리지 마세요 - 이혼 반대 캠페인

- 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 버려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제기하며, 이혼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어른 세계에 경종을 주는 운동
-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사회에 환기를 시키고, 일정 장소를 정해 정기적인 '거리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음. 청소년들의 이혼반대 캠페인은 기성세대에게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엄마·아빠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결혼관이나 이혼에 대한 의식 형성에도 도움을 줌

9) 청소년이 평가하는 텔레비전과 신문 - 매스컴 프로그램 모니터

- 청소년 동아리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모니터하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비평한 글이나 의견을 지면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운동임
-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든 텔레비전 문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신문 등 매스컴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비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시청자 모니터링의 사각지대라고 할 만 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시청자들의 감시에 의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청소년운동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운동 단체나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나 대학생, 언론사 기자, 언론노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10) 밝은 한국 땅에 눈은 세계로 - 국제적인 연대로 시야 넓히기

- 청소년들이 자기 집과 학교,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인류에 대한 관심과 세계를 보는 큰 눈과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테러 반대, 전쟁 반대 메일보내기’, ‘전쟁과 폭력·인종차별 반대’,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 ‘북한 어린이 돕기’, ‘유니세프 아동 돕기 모금’ 등을 운동으로 전개함
- 국제적인 연대 운동은 학교간 연대, 동아리간 연대, NGO연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과 교류도 시도해 볼 만 함



11) 야무진 청소년, 똑똑한 시민 - 인터넷, 매스컴에 의견 제시하기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당면 현안이나 심각한 사회문제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사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운동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기관, 시·군·구청, 시·군·구 의회, 신문·방송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자유게시판이나 시민의 소리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개함
- 숨겨진 선행이나 미담 소개, 잘못된 정치사회 현실 비판, 부정이나 비리 고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올릴 수 있을 것임

12)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 청소년 인권운동

- 우리 사회의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구를 상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보호·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 여론화 시키는 운동으로, 청소년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는 물론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운동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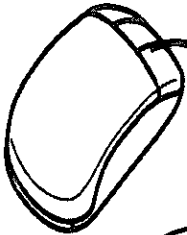
♣ 읽어보면 좋은 책 ♣

▶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

경실련비전21포럼 외(2001). 한국사회의 비전21. 시민의신문사.
 김동춘·조희연 외(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데이비드 비당 외(1997).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여든가지 물음. 도서출판 오름.
 박상필(2001).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
 박원순(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박원순(1999).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한겨레신문사.
 박원순(2001).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아르케.
 이해숙(2001). 삭스핀스프와 짱뿔국물 -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24시. 아르케.
 조효재 위음(2000). NGO의 시대. 창작과 비평.
 조희연 외(2001).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편집부(2000).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하승창(2001).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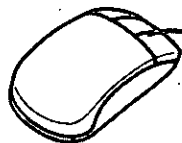
▶ 청소년이 직접 체험한 사회참여활동 사례들

대니 서·임지현 역(1999). 행동하는 세대. 문학과 사상사.
 대니 서·임지현 역(2000).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과 사상사.
 천희완 외(2001). 아름다운 교육실천 사회참여 체험교육. 우리교육.
 성공회대학교(2000). 제1회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한마당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2001).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한마당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 찾아보면 좋은 사이트 ♣

민주공동체실천사업 : www.civil.go.kr
 사이버NGO 네트워크 연합 : www.ngo.or.kr
 성공회대학교 청소년문화공간 : '깨다' <http://blue.skhu.ac.kr/~kkeda>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www.civilnet.net
 전국사회교사모임 : <http://socioedu.njoyschool.net>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 www.edjust.org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www.jinbo.net
 그 외 시민사회단체 관련정보는 '천희완 외(2001). 아름다운 교육실천 사회참여 체험교육 pp. 230-245'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푸른이 동아리모임’의 푸른 세상 만들기 30개교교 이웃돕기, 자원 봉사 활발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노태원(서울 신일고 3년)군은 고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공부엔 흥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30여일 앞둔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선 같은 반 45명 가운데 7등으로 뛰어올랐다.

무엇이 태원이를 뒤늦게 철들게 한 것일까?

‘푸른이 동아리연합모임’(회장 배명옥, 신일고 2년)이란 게 있다. 서울·경기지역 30개 고교 40여 개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문화공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일종의 청소년 NGO(비정부기구 시민운동단체)다. 지난해 이 모임의 봉사부장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다는 태원이는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선배들로부터 구전되어온 ‘푸른이’ 모임의 탄생 비화는 이렇다.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제기가 됐다고 해요. 당시엔 청소년 자살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였죠. 보다 못한 고교생 7명이 알음알음으로 뜻을 모았어요. 건전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취지였죠.”

처음엔 동네 교회에 모여 동네 어른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시를 낭송하거나 아카펠라(무반주 노래) 또는 복음성가(가스펠송)를 불렀다. 아이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뽑고 정기적인 문화공연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97년부터다. 수재인들끼리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1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가 하면, 지난해엔 공연 표를 팔아 ‘실업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렇게 모인 30만~40만원을 기탁하면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사는 학생들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난생 처음 느끼는 기쁨에 벅찬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졸업한 선배들의 자리를 후배들이 채우며 3000여명의 학생들이 ‘푸른이’를 거쳐갔다. 졸업한 선배들이 이번엔 ‘이끌이’(지도자)모임을 만들어 후배들을 재정적·정신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뜻을 높이 산 ‘괜찮은’ 어른들이 이끌이에 참여한 것도 그대쯤이다.

지난 7월 서울 대학로 거리문화축제 댄 이동우(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원이 허름한 길거리 공연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첼로를 잡았고, 전미영 한국교원대 음대 교수도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인 전무용씨와 장대현 협성대 교수(기독교교육학), 이용환 노원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장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노릇을 자임했다.

‘푸른이’ 아이들은 올해 또 하나의 뜻깊은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한 한국’ 만들기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푸른이 자치모임별로 ‘아름지기(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문종윤(서울 경성고 2년)군은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 거리청소에 나서고, 남기오(서울 보성고 2년)군 등은 대학로 일대에서 주말마다 빈 알루미늄 깡통을 모았다. 오는 16일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푸른이 회원들로 구성된 ‘아름지기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정식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선 월드컵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10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된다.

“빈 깡통을 모아 판 돈으로 1인용 길거리 청소차(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월드컵 때 주요 행사장을 돌며 깨끗한 거리로 꾸밀 생각이에요. 서울은 우리의 얼굴이니까요.”(이주영, 서울 신일고 3년)

‘청소년 관광 엑스포’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 ‘푸른이’들의 푸른세상을 위한 꿈은 11월 중순 문을 열 인터넷 홈페이지(<http://greenpia.org>)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 1999. 10. 12

사회참여 체험학습 생각보다 신기하네

학교는 아이들한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친다. 사회 교과서는 이런 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회참여를 해보도록 권유한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대개 교실에서 그렇게 배울 뿐이다. '정답'을 위한 공부만 하는 것이다.

사회 교사들은 아이들이 직접 사회참여를 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해보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많은 학교는 아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껴안지 못하는 탓이다.

그래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서울 삼성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5월부터 두달 동안 힘들었지만 보람차게 보냈다. 아이들 스스로 생활 주변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참여 체험학습을 해봤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냈다. 6월 말 무려 90%의 아이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교육을 지도한 이민정 교사는 "수행평가로 사회참여 보고서를 쓰도록 했는데, 교실에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모둠을 짜 먼저 생활 주변에서 부당하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 뒤 대안을 찾아보고,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가령 의식개혁 캠페인을 벌인단든지, 관련 기관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투고나 전자우편을 통해 여론을 모으는 작업 등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교사는 홈페이지(ming.cyworld.com)를 만들어 이곳에서 각 모둠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도하고,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조언을 했다.

아이들은 애초 예상보다 이런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관심사도 다양했다. 학교 화장실 악취문제, 교내 흡연 등 학교 안의 문제부터 근린공원의 식수시설 부족 등 지역사회 문제까지 다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 이 교사는 "이런 교육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배우고 생활 주변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효과도 확인했지만 아이들이 '나도 사회참여를 해봤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도 소중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 교과를 활용한 사회참여 활동 교육이 학교에서 선보이게 된 데는 3년 전부터 학생들의 특별활동이 강조되면서 생겨난 '엔지오(NGO:비정부기구) 탐구반'의 축적된 경험들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인권과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동아리들의 활동영역도 단순히 시민단체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기 안양고 엔지오 탐구반이 대표적이다. 이 특별활동반은 1999년에 안양시립도서관 폐관시간이 너무 일러 도서관 이용을 자주 못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기 등을 통해 개선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해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탐구반을 지도하고 있는 김원태 교사는 "탐구반 활동을 계기로 지난해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체험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수행평가를 해봤다"며 "이런 사회참여 체험교육이 교실에서 이뤄지는 어떤 교육보다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영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서울 영남중 엔지오 탐구반은 특별활동반이 꾸려진 첫해인 99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 다음해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문제에 관심을 쏟은 데 이어 올해는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송동빈 지도교사는 "이런 특별활동에 대해 학부모들이 필요없는 우려를 할까봐 걱정했는데, '아이가 정말 즐거워한다'며 격려를 해주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1. 7. 9

장애인들과 춤 · 노래 봉사 1000시간 송호제군

송호제(한영고 2학년, 서울 강동구)군은 또래의 여느 학생들처럼 노는 걸 좋아한다. 다만 노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는 주로 복지원이나 재활원에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하며 논다.

작년 5월부터 그렇게 놀다보니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1000시간에 이르렀고, 최근 열린 전국중고생자원봉사자대회(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푸르덴셜생명 공동주최)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호제가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봄에 담임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봉사활동이 고교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10시간 정도는 때워야 했는데, 학교 근처 믿음복지원에서 일해보니 뜻밖에 재미가 쏠쏠했다. 장애인들을 위해 식사지도, 설거지, 빨래 등을 하면서 마음 속에서 저절로 기쁨이 샘솟는 걸 느꼈다.

학교나 집에서 내성적인 아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가 복지원에 다니면서부터 활기차고 서그러운 청년으로 변한 것이다. 호제는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즐긴다.

그 첫번째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율동을 장애인들에게 맞게 안무한 것이다. 복지원의 그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었다. 뮤직비디오도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작년 10월에 강동구에서 열린 선사문화축제에 함께 참가해 공연을 하고, 12월엔 한영고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어울린 사랑나눔 콘서트를 가졌다.

호제는 올해부터 믿음복지원 가는 길에 있는 장애아 입양기관 암사재활원도 찾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개발한 춤을 가르쳐서 올 8월에 공연을 가졌다. 그는 또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애아들이 바깥에 나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이끌고 있다. 호제의 말에 따르면 (재활원)동생들은 자폐성향이 심해서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상상하는 것이 이상으로 어렵다고 한다.

올 가을부터는 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자기 표현법을 익혀주기 위해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장애아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으면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화제를 꺼내면 아이들의 굳게 닫힌 입이 서서히 열린다고 한다. 동생들도 자기에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 해사하게 웃으며 그렇게 좋아한다.

그런데 호제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고3이 된다. 대학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예 (봉사 활동을)안할 수는 없고요 당분간 시간을 줄여야겠지요.

그런 호제에게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 호제가 봉사활동에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걸 안타까워하던 부모님들이 이제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으니까.

개인사업을 하는 아버지(47세)는 독학사 자격을 땀던 경험을 살려 그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경기민요 이수자인 어머니(47세)도 노인대학이나 경로잔치 등에 기꺼이 나가 무료 공연을 한다. 그의 가족은 사랑이 위로 호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호제의 장래 희망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소박하게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 문제를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힘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야심(?)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꿈을 시드러운 삶의 고비마다 오롯이 지켜 나가기를.

문화일보 2000. 11. 8



♣ 청소년 정책참여, 이런 방법도 있어요? ♣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1995년부터 '청소년창안제(청소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창안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고 제안된 의견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1년도에는 청소년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정보문화육성, 교류활동 증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문제 및 유해환경 개선, 고용·실업 등의 분야에 전국 청소년들의 참신한 의견들이 제안되었으며, 그 내용은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청소년창안제'는 광주직할시와 충청남도에서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책제안 사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국가 경제와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산업구조, 임금구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물질만능주의와 학력제일주의 등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정신적 혼돈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청소년의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또는 학교의 정책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와 학교측면에서 모두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형식적인 자원봉사로 치우치고 만다. 이러한 자원봉사 암흑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직업체험 겸 봉사활동으로 전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청소년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시기이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갈망하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듣거나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며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좋을 것이다. ……유치원 선생님을 원하던 고등학교 1학년 …… 자원봉사자를 직업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어린이 보조 전문 자원봉사자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또는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 연결,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자원봉사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로 관리

외국의 사례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시간통장제로 관리해줌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한다. …… 통장에 저금하는 것처럼 또는 현월을 하면 현월증서를 주는 것처럼 눈으로 자신의 봉사시간을 보면서 보람과 자신의 자아성취를 느끼도록 해 준다면 봉사하는 시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능률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간을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시간을 더해 학년말 또는 학기말에 표창장 등으로 그 학생의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3.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봉사활동 연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센터나 학교를 찾으면 이곳 저곳 학생들을 아무렇게 배치해 버린다. ……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봉사활동을 꾸준히 적성에 맞는 곳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며,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4.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도 만들기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 막막하기 마련이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길잡이 노릇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도이다. 이렇게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려고 어렵게 센터를 방문하여 어디를 찾아가고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이며 현장에서 바로 기관 또는 관리자와 연결되어 보다 쉽게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봉사활동 실시

……그러나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교육되어지고,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처럼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6. 청소년 자원봉산지도자 양성 강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이 현장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끼리끼리 가게 된다. 대부분이 교육을 받아 현장에 나가 잘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끼리 뭉쳐서 있다보면 이런 저런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청소년 자원봉산지도자가 각 기 관마다 배치되어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고, 이끌어 준다면 보다 나은 자원봉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7.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실제로 많은 곳이 자원봉사 터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하려 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활동터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원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터전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개발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취미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학교 또는 교과 수업과 연관지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이 있다.

……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며,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에 맞는, 또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자원봉사 암흑기라고 불리는 현재 상황을 좀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경아, 2001년 제 7회 청소년창안제 최우수상 수상)

그림으로 본 12년전의(?) 청소년 문제



청소년시리즈 ①



대학
항려진

청소년시리즈 2



청소년시리즈 3



청소년시리즈 4



청소년시리즈 5



청소년시리즈 6

박재동 '한겨레 그림판' 1989. 8.1. ~ 8.6.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사회가 그 사회의 아동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회의 복지정책과 열정의 양상은 물론 그 사회의 정당성에 대한 감각, 미래에 대한 참여 의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욕 등을 반영한다

- 자비에르 쿠엘르(Javier Perce de Cueller) 유엔사무총장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에게 최대한의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전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희망과 에너지요, 열정과 실험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는 아이들을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 코피아난(Kofi Anan) 유엔 사무총장의 세계청소년장관회의 개회사 중, 1998년 8월 8일 리스본

우리의 사명은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 지도력, 성취의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병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천인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강건한 시민으로 훈련시키는 데 실패한 데서 기인한다

사려깊고 헌신적인 작은 시민집단이 세태를 변화시켜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다

- 미국 유타주 청소년위원회 Association of Youth Council의 활동신념

당신은 중요합니다. (You are important.)

당신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You are a part of us.)

우리는 당신이 없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We can't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you.)

- 미국 워싱턴주 청소년단체 Center for Youth as Resources(CYAR)의 활동모토

“지나치게 감싸는 것은 어른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 혹시 다치면 어쩌나, 그러다가 혹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여 부모들은 애들이 다칠 만할 것들은 아이 눈앞에서 다 없애버리거나 심지어는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무얼 해 볼 만한 기회는 없어진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어린이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말이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돌려주자

어른들이여, 아이들을 믿어 보라. 그리하면 아이들에게서 자발성과 자기 책임성이 자라날 것이다.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찍 자발적이 되고, 차츰 어른들의 도움에서 자신을 풀어 놓을 수 있게 된다. 미래 때문에 아이가 즐거워하고, 그를 슬프게 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화를 내고, 흥미를 보이는 오늘을 하찮게 여긴다. 아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이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들을 수년 동안이나 속이고 있는 것이다.

- 야누츠 코르차크(Januaz Korczak, 1878-1942, 폴란드 교육사상가)의 「아이들을 변호하라」중에서

새싹들처럼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보내는 봄처럼
언 땅을 녹이고 돌아나는 새싹처럼
어둠을 이기고 솟아오는 아침처럼



첫마음

한 번은 다 바치고 다시
겨울나무로 서 있는 벗들에게

저마다 지닐

상처 깊은 곳에

따뜻한 빛이 숨어 있다

첫마음을 잃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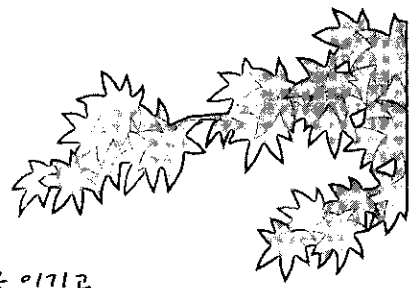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마음으로

- 박노해





사랑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뻐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오는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가시를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 김남주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벽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다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랑 속에 들어 있다

사랑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랑만이 희망이다

- 박노해

아이들아, 아릅답고

착한 천진한 아이들아

실로 오늘 이 가을 하늘 만큼이나

티하나 없는

해맑은 아이들아

아무에게도 눈치보는 일 없이

아무에게도 기죽는 일 없이

너희들이 부어받고 태어난

그 광대한 하늘 넓이의 권리만큼이나

구김살 없이 자라거라

- 이광웅 '가을아이들' 중



동물학교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달리기, 나무 오르기, 날기, 헤엄치기 등으로 짜여진 교과 과목들을 만들었다. 편리한 교육 일정의 진행을 위해 모든 동물들이 예외 없이 전 과목을 공부해야만 했다.

오리는 수영 과목에서 실로 눈부신 실력을 발휘했다. 사실 그 과목에 있어선 가르치는 지도 교사보다 오리가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오리는 날기 과목에선 겨우 낙제점을 면했으며, 달리기 과목은 더 형편없었다. 달리기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리는 방과후에도 혼자 남아 더 배워야 했으며, 달리기 연습을 위해 수영 과목을 포기해야만 했다. 달리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오리는 발의 물갈퀴가 너덜너덜해졌고, 그 결과 수영 과목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만 받아도 다음 학기로 무사히 진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 과목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영 과목의 기초를 배우느라 너무 많이 물 속에 들어간 나머지 토끼는 신경 쇠약증에 걸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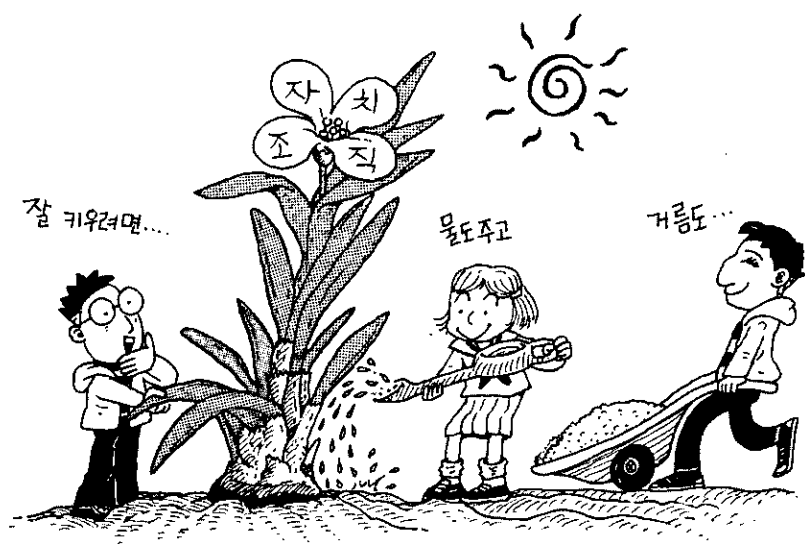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 과목에선 따를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날기 과목에서 교사가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날기를 시키는 바람에 다람쥐는 좌절감만 커져 갔다. 그리고 무리한 날기 연습 때문에 근육에 자주 쥐가 났으며, 그 결과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조차 미, 달리기 과목에선 당연히 양을 받았다.

독수리는 문제아였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 독수리는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큰 날개를 펴덕여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자주 지적을 받았다. 독수리는 교사에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 날고 탁월한 활공 실력을 가진 독수리였건만 졸업할 때까지 끝끝내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년이 끝날 무렵, 수영도 곧잘 하고 달리기와 오르기와 날기까지 약간 할 줄 아는 비정상적인 뱀장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읽는 학생으로 뽑혔다.

한편 대초원에 사는 야생 개들은 학교에서 땅파기와 굴파기를 교과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남들처럼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학교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교육과 관련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오소리에게 보내 개인지도를 받게 했으며, 훗날 땅왜지와 뒤쥐(굴을 파서 땅 속에서 사는 북미산 쥐) 등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했다.

- 잭 캔필드 · 마크 빅터 한센(2001).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1』 중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 www.egov.go.kr

종합민원서비스, 공공기관, 현행법령, 전자관보, 정책포럼 등 정부 주요정보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포털사이트이다.

○ 청와대 www.cwd.go.kr/korean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대통령께 편지들' 난을 통해 대통령께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동영상으로 청와대를 관람할 수도 있다. '청소년마당'을 클릭하면 '함께 읽는 편지', '우리들 마당' 등의 난을 통해 대통령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 청와대 :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청와대 ☎ 02) 730-5800

○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www.smg.go.kr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창구로서, 국민들이 보고, 듣고, 겪은 억울한 일과 부정부패를 신고하고 다양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

국회소식과 국회의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종 입법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의견', '인터넷 민원' 등의 난을 통해 건의의견을 올릴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정연수'를 실시한다.

○ 대법원 www.scourt.go.kr

대법원 소개와 함께 종합법을 정보, 재판정보 등을 제공하며 민원안내 및 법원 도서관 안내 코너를 운영한다.

○ 국정홍보처 '열린정부 열린마당' www.allim.go.kr

부처별 국정자료와 기관별 보도자료를 볼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와 문의, 토론을 할 수 있다. ('나도한마디', '정부여론조사', '온라인투표', '자유 의견 올리기' 등의 코너 활용)

○ 법제처 www.moleg.go.kr

각종 현행법령 및 최근 개정법령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입법계획 및 예고 현황과 행정심판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ombudsman.go.kr>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를 담당한다. 홈페이지상에서 바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선거 및 정당제도, 선거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e선거교실'을 클릭하면 초·중·고등학교용 홈(공명)과 함께하는 선거이야기)과 중·고등학교용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해당 부처 및 자치단체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위의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정부부처' (2001년 현재, 18부 4처 16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있어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정부부처 연락처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대표번호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국무총리비서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국무공보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감사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산 25-23	110-760	7219-114
외교통상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재정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통일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국방부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	140-023	795-0071
행정자치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교육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과학기술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문화관광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110-050	795-0071
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해양수산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 진솔B/D	135-080	554-0105
산업자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정보통신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110-050	750-2114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보건복지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27-760	500-4114
법제처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세종로청사	110-760	3703-2114
국가보훈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150-010	780-9601
국세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8-4	110-140	397-1200
관세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302-701	(042)481-0014
조달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302-701	(042)481-0014
예산청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	137-756	3496-5116
통계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135-723	222-1901
검찰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30-1	137-730	3840-2000
병무청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1	140-190	753-0163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09	120-020	363-0112
기상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60-18	156-010	841-0011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441-707	(031)292-4370
산림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130-012	(042)481-0014
해양경찰청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105	400-201	(032)884-5506
중소기업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427-010	(042)481-0014
특허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135-784	(042)481-0014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5	122-704	380-1800
철도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100-162	(042)481-0041
【국회·법원 등】			
국회사무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150-701	788-2001
대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137-750	3480-1114
법원행정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137-750	3480-1100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재동 83	100-250	708-3456
중앙선관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427-010	503-1114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국회 방청과 참관

1. 국회의 방청이란?

방청이란 국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국정심의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 단체방청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방청 자격은 12세이상 일반국민으로 제한한다.

1) 일반방청

주로 국회의원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국회의원(신청시 인장 지참)의 소개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방청권 교부방법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하며, 회의당일 국회사무처에서 각 교섭단체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체 총무실에서 일괄 교부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소개한 경우에는 방청권을 개별적으로 교부한다.

2) 단체방청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로 방청을 원할 경우 공문으로 접수하면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회의 참관이란?

참관이란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물과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사당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도 일반인에게 항상 개방하고 있어 주말이면 온가족이 함께 구경할 수 있으며 평일에 단체방문인 경우 미리 경위과(788-2885)로 문의하면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1) 참관 신청서 제출 : 본관 안내실에 비치된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직원이 안내한다.

2) 참관 절차

① 참관시간 : 오전 9:00~일과종료시까지

평상시(3월~10월) : 9~18시, 동절기(11월~2월) : 9~17시

※ 토·공휴일도 평일과 동일하며, 명절(추석, 설)에만 참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 본회의 개의시나 의사당내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관에 제한이 있다.

② 참관경로 : 후문안내실에 모인후 입장 → 3층 방청석 → 3층 로비 → 상임위원회 회의실
→ 후문안내실 → 헌정기념관 순

③ 방청, 참관신청 문의 및 접수처 : 본관 B127호실

Tel) 788 - 2885/2932 Fax) 788 - 3384 E-mail : guide@assembly.go.kr

○ 국회정보공개

1. 국회정보공개란?

국회에 누가 있는지,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회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직접 국회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회 정보공개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2. 정보공개 청구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1) 중학생 이하: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 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2) 고교생이상: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 청구 가능

3. 청구방법

청구한 정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 있다. 청구서를 기재한 후 국회기록보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공개처리한다.

1) 연락처

- 우편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기록보존소 정보공개담당자
- 모사전송: (02) 788 - 3348
- 문의사항: (02) 788 - 3115

2) 정보공개청구서 기재방법

- 청구인의 인적사항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분)
- 청구내용 (알고자 하는 정보를 자세히 적는다)
- 사용목적
- 공개방법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보고자 할 경우 열람이나 시청에 V표를 하고 우편으로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본 · 출력물에 V표를 한다)
- 청구인의 서명
- 접수증(정보공개청구서 하단):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보내준다.

4. 정보공개절차

1) 수수료가 붙나요?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며 이는 수입인지로 징수하고 있다.

2) 수수료 감면혜택

- ① 국회정보공개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50% 감면
- ②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에서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 ③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 국회 연락처 및 교통편

1. 연락처

1) 국회안내 (Tel: 788-2001)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국회에서 누구를 찾거나 어느 사무실과 통화하고자 할 때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2) 국회방청 (Tel: 788-2932)

▶ 국회의사당 본관 안내실에서 본회의 개의 30분전 부터 온 순서대로 접수한다.

3) 국회참관 (Tel: 788-2885)

▶ 국회방청이 아닌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물과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반에게 항상 개방하고 있다.

4) 국회도서관 이용 안내 (참관: 788-4113, 열람: 788-4211)

▶ 국회도서관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참관과 일반인이 만 20세 이상인 경우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다.

5) 헌정기념관 관람안내 (788-3656~7)

▶ 국회 50년의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관람 시간은 10:00~17:00 (평일, 토요일)이다.

6) 국회간행물센터 (788-3961)

▶ 국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구입 할 수 있는 곳으로 우편 구매도 가능하다.

7) 위원회전화번호

국회운영위원회 788 - 2900	교육위원회 788 - 2687	건설교통위원회 788 - 2691
법제사법위원회 788 - 218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788 - 2685	정보위원회 788 - 2275
정무위원회 788 - 2075	문화관광위원회 788 - 277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88 - 2092
재정경제위원회 788 - 280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788 - 2688	윤리특별위원회 788 - 242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788 - 2682	산업자원위원회 788 - 2689	여성특별위원회 788 - 2291
국방위원회 788 - 2686	보건복지위원회 788 - 2690	
행정자치위원회 788 - 2185	환경노동위원회 788 - 2285	

2.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2번 또는 3번 출구 15분 소요

▶ 일반버스: 3, 9, 30, 33-1, 48, 53, 77, 112, 119, 120, 123, 133-2, 145, 326

좌석버스: 3, 30, 33, 77, 119, 121, 700, 720, 703, 740, 631, 1008

▶ 국회순환버스 이용 안내(Tel: 788-2118)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당산역, 5호선 여의도역에서 국회버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국회를 왕복한다.



청소년위원회란?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이나 청소년단체·시설 단위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정책건의나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을 시행하는 청소년 자율·자치기구를 말한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명칭이나 활동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행정조직 단위에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위원회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서울시 ‘청소년회의’, 경기도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충남 ‘청소년자치위원회’, 서울시 송파구청 ‘청소년구정평가단’ 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위원회’는 1998년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중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사업으로 제시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지역과 청소년단체·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등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 위상과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트(Hart, 1997)가 말했듯이 가장 이상적인 참여의 단계는 현재 청소년들의 능력에 맞는 최상의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마지막 8 단계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청소년위원회(BYC)처럼 독자적인 활동력을 가지며 사회 내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까지 힘을 갖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청소년위원회’가 그렇듯이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모니터하는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과 내용을 갖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역량과 사회적 인식과 객관적인 여건 등이 ‘청소년위원회’의 위상과 내용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물론 ‘청소년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한 과정에는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도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YMCA, YWCA에서는 오래 전부터 Y틴, 교교Y 등의 동아리

활동 형태의 청소년 자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걸스카웃의 경우도 걸스카웃의 정책수립과정에 회원들의 의견반영과 참여확대를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 청소년 '자율·참여'를 기조로하는 청소년정책 변화로 청소년 단체·시설에서의 '청소년위원회' 운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 '청소년회의',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자치위원회' 등이 그 사례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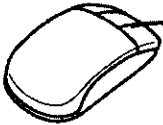
'청소년위원회'는 그 실시 역사나 경험으로 볼 때, 아직 첫걸음 단계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4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2001년도에 평가 연구를 실시하면서 아직도 많은 장애와 과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그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어쨌건 사회제반 의식과 청소년들의 생활여건 등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정책의 궁극적 수혜자인 청소년을 정책결정과정과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자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경험과 맞닥뜨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 어떠한 일을 기획하고, 일을 펼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큰 의미와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성과를 보겠다는 생각이나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청소년들의 참여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 청소년참여의 토양이 다져지고 자생적인 참여활동의 싹이 터 오를 때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야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참여의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만큼 오랜 기간의 준비와 훈련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자치활동으로서 공식적인 자치기구의 구성·운영과 참여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확대와 시민의식 및 자치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정책과 사업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청소년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는 존재로 신뢰함으로써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자율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견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권리교육과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될 때만이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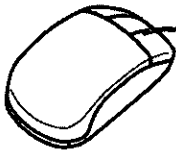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 <http://mct.koreayc.org>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 www.kyc.go.kr
경기도차세대위원회 : <http://cafe.daum.net/sala>
충남청소년자치위원회 : www.feechal.com/chungnam2000
서울시 청소년회의 : www.youthcenter.co.kr
<http://myhome.naver.com/herolss/1234>
<http://cafe.daum.net/sayo>
서울시 송파구 구정평가단 : www.songpa.seoul.kr/youthpage/home.htm



♣ 읽어보면 좋은 책 ♣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선진 외국의 청소년위원회 사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정주 · 같은배 · 정화수(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천정웅 · 김영지 · 임지연(1997).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천정웅 · 김영지 · 임지연(1997).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본 청소년들은 아직은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만큼 의미와 성과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내가 ‘짱’ 먹을 수 있는 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뿌듯한 보람과 끝낸 뒤의 벅차오는 영양가 만점인 성취감이 있을거예요. 저는 10여년간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살아오면서 해왔던 이런 저런 일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바뀌가고 이뤄 가는 기쁨이란,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적이나, 돈 따위의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그렇게 감칠맛 나는 맛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의 ‘짱’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 진정한 ‘짱’ 이십니다. 화이팅!!! ”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김현성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위원이 되었을 때는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색색의 단풍들로 아름다운 가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정책자문 위원회는 12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성의 자문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3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많은 것을 얻은 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각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소중한 의견이 사회에 반영 되는 것을 볼 때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청소년위원회 여러분들! 밝은 세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힘써시다. ”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참여분과위원회 위원 | 이진규

66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진 단체입니다. 청소년의 힘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 필요로 하는 것을 당당히 행정기관에 요구하면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시정, 건의할 수 있으니까요. 즉 청소년의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 당연히 청소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아니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2001 충남 아름다운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로 -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우리 세상을 - 슬로건을 가지고 청소년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보자는 의도로 행사를 치렀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빼놓지 않고 활동하고 있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한번 마음껏 도전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99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장 | 김태우

66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 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자율적인 청소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의 장점은 우선 학생이기 때문에 못하던 일의 범위가 넓어져서 세상 보는 눈이 더욱 넓어지고 자신이 해야 할 미래의 상을 그려나가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활동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책임질 수 없다, 학생이다”라는 이유로 좌절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이제는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소년 행사를 많이 했는데 임원들하고 의견차이가 생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빠지면 풀어주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입시라는 어려운 벽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부만이 꼭 자신의 1순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99

날개를 펴봐!!!!!!!!!!!!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장 | 서윤석

56 경기도는 2000년 6월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기 위원장이 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크고 많은 활동들을 기대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많았습니다. 아무 것도 해 놓지 못한 1년을 반성하다 씨를 심지도 않은 마른 땅에서 새빨간 사과를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는 씨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들을 자주 가져서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쌓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캠페인을 벌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답니다. 큰 것만을 쫓으려는 욕심을 버린 지금, 전 누구보다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9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박사라

56 청소년위원회는요 ~ 청소년들이 모여 문화의 집 안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발적 집합체라고나 할까요? ^^ 청소년수련관내 문화의 집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 위원회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머릿속에서만 구상하고 있었지만 혼자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일들을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도와 이룰 수 있길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구요. 아직 위원회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여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문화분과에서는 수련관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했었구요, 운영분과에서는 청소년 추천목록(서적, 음반, 영화 등)을 작성해서 문화의집 게시판에 게시중입니다. 아마 23일에 있을 청소년위원회 개최 크리스마스 행사가 대표적인 활동이 될 것 같아요..... 활동의 장점... 음... 청소년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책임 의식과 적극성을 키울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성도 키울 수 있구요. 힘들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구요, 인간관계에서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위원장을 하면서 어느 곳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간다는 것에 보람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아서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는 위기 의식도 갖게 했구요. 99

서울시노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문소원

외국의 청소년위원회가 제안하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단계'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1992년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에서 청소년참여에 관한 유럽선언(The 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municipal and regional life)”을 채택하여 각 국가에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한 결과 많은 국가의 자치단체들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청소년위원회가 제안하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단계’입니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살펴봅시다.

① 미국 유타주 청소년위원회 연합회(Association of Youth Council) ‘청소년위원회’ 운영 10단계

1.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을 배워라
2. 투표나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을 결정하라.
3.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알아두어라. 얼마나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도 예상해야 한다.
4.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 직원과 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하라. 책임과 재정적 절차 등을 잘 조직해야 한다.
5. 청소년을 사랑하고 좋은 역할모델이 될 지도자를 선정하라.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새로운 청소년위원회를 선전하라. 언론보도, 포스터,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홍보하고 입소문을 통한 홍보의 위력을 기억하라.
7. 청소년위원회 구성원을 선거나 임명을 통해 구성하라. 무엇을 할 것인지 주의 깊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성취유형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지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8. 헌장을 만들어라. 이것은 청소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9. 운영하기 쉬운 활동들을 선택하라. 작은 성공들이 모여야 거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10. 지도자와 청소년 훈련을 시행하라. 이것은 위원회연합회가 가장 가치를 가지는 부분이다. 지역모임과 리더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라.



www.youthcouncil.org

▶ 영국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지역청소년위원회' 설치 10단계

1. 지역사회와 다양한 청소년집단 중에서 핵심집단을 모은다.
2.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를 찾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
3. 관심 주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역청소년위원회가 할 일을 정한다.
4. 지역청소년위원회의 조직과 주요 임원을 선출한다.
5. 지역청소년위원회의 재원을 지역보조금, 사업비, 민간보조 등으로 마련한다.
6. 파티나 디스코잔치와 같은 사교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청소년 집단간의 접촉을 강화한다.
7. 더 많은 청소년과 청소년집단을 끌어 모은다.
8. 실천가능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한다.
9. 홍보자료나 홍보물을 발간하고 지역 대중매체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10. 청소년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www.byc.org.uk

▶ 영국 햄프셔청소년위원회(Hampshire Youth Council) 지역위원회 설립 · 운영 10단계

1. 청소년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 청소년단체와 연락하거나 지역에 있는 중등학교와 연락하라. 포스터를 붙이고 지역신문에 질문지를 발송하라. 청소년과 관련되는 교사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기존 청소년단체의 청소년들에게만 한정하지 말아라.
2. 개방적인 모임을 조직하라! 이런 모임이 청소년의 관심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모든 청소년단체를 초청하도록 노력하라.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라.
3. 위임조건(권한)을 결정하라! 모임을 개최하기 전에 미리 지역위원회 또는 자금단체가 청소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에 정확히 동의했는지를 설명하라. 오락시설, 노인시설, 환경문제에 관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규약에 대한 재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를 세워라! 선거 때, 청소년위원회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하라. 언제 그들이 일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라. 세부사항조사에 대한 연구와 위임으로부터 대표되는 연령 범위와 의무에 대하여 생각하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만, 난항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를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5. 자금! 청소년지역위원회에 운영비를 지급하라. 청소년교구위원회가 단지 자문기구로 있는 청소년지역 위원회는 운영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처럼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의 책무성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재정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6. 청소년지역위원회 행사를 시작해라! 첫 번째 청소년위원회 모임에 신문사를 초청하고, 보도자료를 보내라. 지역국회위원회에 추천을 받아내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라.
7.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을 포함하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지역위원회에 가입하면 할수록 청소년 위원회가 더 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8. 활동을 지원하라! 청소년들은 진행 중인 작업/활동의 프로그램을 곧 입수할 것이다.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라. 간섭이 아닌 지원과 격려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9. 연락망을 구축하라! 특히 신문과 유명한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라. 단체를 공표하라. 지역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라.
10. 정보를 교환하라! 보고서를 발표하는 모임에 청소년위원회 의장을 초대하라. 처음 이것은 문서화된 보고서일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는 구두형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참석할 수 있도록 자극은 하되 모든 모임에 청소년위원회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말아라. 청소년들이 장시간의 회의에 대한 걱정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계획표에 청소년항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청소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의 위원회가 청소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라.



<http://haptc.parish.hants.gov.uk>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조례

(제정 2000. 11. 24. 조례 제3062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 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 및 도내의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도 및 도내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 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조 (위촉자격등)

- ① 위원회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6조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 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0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